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권 정 윤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만 3세 초롱반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활동 개선을 위한 실행연구

2013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유아교육전공

김 자 희

만 3세 초롱반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활동 개선을 위한 실행연구

권 정 윤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유아교육전공

김 자 희

인 준 서

김자희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A어린이집 초롱반 담임교사인 본 연구자가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활동개선에 관심을 갖고 수행한 실험연구이다. 다문화가정 유아가 초롱반에서 이루어지는 언어활동에 참여하면서 직면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행과정을 통하여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활동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에 따라 다음의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1. 만 3세 초롱반의 다문화가정 유아를 위한 언어활동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2. 만 3세 초롱반의 다문화가정 유아를 위한 언어활동의 개선과정은 어떠한가?
3. 만 3세 초롱반의 다문화가정 유아를 위한 언어활동 개선과정에서 나타난 유아의 변화는 어떠한가?

본 연구는 A어린이집 만 3세 초롱반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활동에 대해 연구자인 교사가 인식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행한 실험연구이다. 만 3세 초롱반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활동을 위해 2012년 3월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활동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2012년 8월 20일부터 2013년 1월 4일까지 20주 동안 계획과 실행 및 평가를 거듭하면서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활동을 개선해 나갔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유아의 또래관계의 언어적 의사소통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험연구로 사전 계획단계, 1차 전개단계, 1차 전개활동평가, 2차 전개단계, 2차 활동평가로 진행 하였으며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활동 외에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다문

화 지원센터의 지원을 통한 언어지도가 매주 2회 어린이집과 센터에서 이루어졌다. 언어지도사의 개별 언어지원활동을 위하여 활동의 주제나 내용을 본 연구자와 협의하여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만 3세 초롱반 다문화가정 유아를 대상으로 자유선택활동시간에 이루어지는 다문화가정 유아의 대·소그룹 언어활동 진행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관찰, 비디오 녹화, 교사 면담, 유아 면담, 저널 작성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개별 언어지도는 개별 언어활동이 이루어진 후 언어지도사와의 면담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만 3세 초롱반 다문화가정 유아들은 또래 유아들과 함께 놀이하고 활동하는 과정에서 원만한 상호작용을 하지 못한다는 문제점,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초롱반에서 이루어지는 대·소그룹의 언어활동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문제점, 자유선택활동의 놀이를 선택하지 않는 문제점을 나타냈다.

둘째, 20주에 걸친 언어활동의 개선과정에서 교사는 언어활동의 대·소그룹의 다양한 방법의 언어활동을 진행하였다. 1차 언어활동으로 다문화가정 유아에게 언어활동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언어활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아에게 친숙한 가정연계활동이 진행되었다. 다문화가정 유아는 또래 유아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발표하면서 언어활동에 관심을 보이고 또래 유아와 함께 언어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1차 언어활동을 보완하고 수정하여 2차 언어활동을 계획하였다.

셋째, 2차 언어활동은 그림책을 활용한 통합활동을 계획하여 실행하였다. 다문화가정 유아들은 그림책에 관심을 가지며 주제별로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통합적 활동에 참여하였다. 다문화가정 유아는 언어활동과 그림책 통합활동에 관심을 가졌으며 통합활동을 통한 표현활동에 흥미를 나타내었다.

넷째, 다문화가정 유아의 개별언어지도를 진행하였다. 지역 다문화센터의 지원을 받아 언어지도사가 A어린이집을 방문하여 다문화가정 유아의 개별 언어지도를 진행하였다. 개별 언어지도를 통해 다문화가정 유아는 또래 관계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어휘를 습득하고 의사소통에 장애가 되는 부정확한 발음에 대한 교정을 받았다. 언어지도사의 개별 언어지도를 통해 유아는 의사소통과 언어활동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목 차

논문개요

| | |
|----------------------------|----|
| I. 서 론 | 1 |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
| 2. 연구문제 | 4 |
| 3. 연구자의 배경 | 5 |
| II. 이론적 배경 | 7 |
| 1. 다문화가정의 개념 및 현황 | 7 |
| 1) 다문화가정의 개념 | 7 |
| 2) 다문화가정의 현황 | 9 |
| 2. 다문화가정의 어려움 | 11 |
| 3. 유아의 언어 발달 | 13 |
| 1) 언어교육의 필요성 | 13 |
| 2) 만 3세 유아의 언어 발달 특징 | 14 |
| 3) 다문화가정유아의 언어 발달 특징 | 16 |
| 4. 선행연구 | 17 |
| III. 연구방법 | 21 |
| 1. 실행연구 | 21 |
| 2. 연구대상 | 22 |
| 1) A어린이집 | 22 |

| | |
|--|-----------|
| 2) 만 3세 초롱반 | 24 |
| 3) 만 3세 초롱반 다문화가정 유아들 | 26 |
| 3. 연구절차 | 32 |
| 1) 1단계: 문제 파악 및 변화의 계획 | 33 |
| 2) 2단계: 계획의 실천과 변화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평가 | 34 |
| 3) 3단계: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반성 | 35 |
| 4) 4단계: 수정된 계획에 의한 실천과 관찰 및 이에 대한 반성의 반복 | 35 |
| 4. 자료수집 | 36 |
| 1) 참여관찰 | 36 |
| 2) 동영상촬영 | 37 |
| 3) 저널쓰기 | 37 |
| 5. 자료분석 | 37 |
| | |
| IV. 연구결과 | 39 |
| 1. 만 3세 초롱반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 및 상호작용의 문제점 | 39 |
| 1)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적 상호작용의 어려움 | 39 |
| 2) 자유선택활동시간의 언어놀이 선택의 부재 | 42 |
| 2. 만 3세 초롱반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활동 지원을 위한 1차 실행 | 44 |
| 1) 가정연계를 통한 대그룹 언어활동 | 45 |
| 2) 또래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소그룹 언어활동 | 53 |
| 3) 만 3세 초롱반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활동 개선을 위한 1차 실행평가 | 59 |
| 3. 만 3세 초롱반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활동 지원을 위한 2차 실행 | 61 |

| | |
|--|----|
| 1) 그림책을 활용한 통합활동 | 62 |
| 2) 유아 언어지도사의 개별언어지도 | 74 |
| 3) 만 3세 초롱반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활동 개선을 위한 2차 실행평가 | 77 |
| 4. 만 3세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활동 지원을 통한 유아들의 변화 | 79 |
| 1) 긍정적으로 의사표현하기 | 79 |
| 2) 책보기, 노래부르기 및 말하기를 즐기기 | 80 |
| 3)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 형성하기 | 81 |
| V. 논의 및 결론 | 83 |
| 1. 논의 및 결론 | 83 |
| 1) 만 3세 초롱반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 및 활동의 문제점 | 83 |
| 2) 만 3세 초롱반 다문화가정 유아를 위한 언어활동의 개선과정 | 84 |
| 3) 언어활동 지원을 통한 다문화가정 유아의 변화 | 87 |
| 2. 제언 | 89 |

참고문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 | |
|-------------------------------|----|
| <표 1> 2011년 혼인통계 결과 | 9 |
| <표 2> 국제결혼증가율 | 10 |
| <표 3> 다문화가정 자녀의 연령별 현황 | 10 |
| <표 4> A어린이집 배치도 | 23 |
| <표 5> 초롱반 하루일과 및 교실 배치도 | 25 |
| <표 6> 연구일정 및 절차 | 33 |
| <표 7> 1차 실행내용 및 과정 | 34 |
| <표 8> 2차 실행내용 및 과정 | 35 |

그림 목 차

[그림 1] Kemmis와 McTaggart의 자기 반성적 실행연구 사이클모형32

사 진 목 차

| | |
|---|----|
| <사진 1> 초롱반의 주말지낸이야기나누기 | 49 |
| <사진 2> ‘나의 이야기를 발표하고 있는 유아 | 53 |
| <사진 3> 쌀그림 활동을 하고 있는 유아들 | 55 |
| <사진 4> 인형가면놀이를 하고 있는 유아들 | 58 |
| <사진 5> 글자카드 놀이를 하고 있는 유아들 | 59 |
| <사진 6> 그림책을 활용한 통합 활동으로 스카프 활동을 하고 있는 유아들 | 65 |
| <사진 7> 그림책 ‘너는 누구니?’ 활동 | 67 |
| <사진 8> 그림책 ‘내 친구 깡충이’ 활동을 하고 있는 유아들 | 69 |
| <사진 9> 그림책 ‘야! 비온다.’ 활동을 하고 있는 유아들 | 71 |
| <사진 10> 그림책 ‘꼬마비버와 메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유아들 | 74 |
| <사진 11> 개별 언어 지도를 받고 있는 유아의 모습 | 76 |
| <사진 12> 다문화가정 유아의 그림책활동 후 표현한 그림 | 81 |
| <사진 13> 언어활동을 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유아와 또래 유아들 | 82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사회는 외국인 근로자, 이민자 가정, 외국인 유학생 등 다양한 문화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다문화사회가 되어가고 있으며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면서 국가는 정책적으로 이주산업의 활성화, 인적·사회적 네트워크의 국제화, 외국인 이주정책의 강화 등을 지원하고 있고 이에 따라 다문화가정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농촌을 중심으로 외국인 신부와 결혼하는 한국인 남성이 많았지만 이제는 도시와 농촌을 가릴 것 없이 많은 한국인 남성들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을 하고 있다. 또 다문화가정의 자녀수가 증가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커지고 있다(금지윤, 2008),

통계청(2012)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 혼인 건수 중 국제결혼의 비율은 2011년 기준으로 9%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제결혼을 통한 자녀의 수는 2012년 기준 168,583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안전행정부, 2012). 결혼이민자 가정의 자녀는 전체 168,583명 중 만 6세 이하 영유아가 62.1% (안전행정부, 2012)로 다문화가정의 자녀의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다문화가정의 급격한 증가는 우리사회가 앞으로 다문화가정의 안정된 정착과 생활을 위해 어떠한 지원방향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 자녀의 연령별 현황을 볼 때 영유아기의 자녀들이 전체의 62.1%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다문화가정 영유아들의 긍정적인 성장 및 발달을 위하여 다각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김현경, 2009).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국가에서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지원을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다양한 중앙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다. 2013년의 다문화가족정책에 따르면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을 위해 주요 상대국과의 결혼 시 상대국의 제도문화 교육을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맞벌이 다문화가족 자녀의 돌봄 서비스 우선 지원 및 결혼 이민자, 다문화가정 한 부모가족 등에 대한 지원 확대 등 가족차원의 서비스도 강화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3).

국가적 차원의 지원 뿐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 운영 실시하고 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는 한국생활의 정보(체류·국적취득정보, 교육지원, 취업지원, 한국생활, 의료지원, 생활지원등) 및 지원에 대해 안내하고 있으며 상담실과 자료실을 운영하여 다문화가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다문화 지원센터에서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서비스를 실시하는 한편 다문화가정 자녀를 양육하는 결혼이민자의 어려움을 돕고자 부모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문화 자녀의 독서코칭, 발표토론, 숙제지도와 더불어 기본생활습관지도 서비스도 운영한다. 또한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과 같은 언어발달지원 사업을 통해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 발달을 돕고 있다.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정의 자녀는 학교적응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적응을 방해하는 주된 요인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다. Templin(1957)은 언어습득에 있어 유아의 성장과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하였으며 유아의 긍정적인 언어습득을 위해서는 적절한 환경제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유승애, 2009 재인용). 이러한 환경적 제공이 어려울 경우 유아는 언어발달에 있어 지체를 보이거나 표현의 어려움을 갖는다. 또한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의 학교적응에 관련연구에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 어머니의 의사소통 능력을 꼽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는 한

국어발음과 어휘력이 능숙하지 못하며 이에 영향을 받은 자녀가 언어체계 형성에 혼돈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하고 있다(유승애, 2009). 부모의 언어능력 및 의사소통능력은 자녀의 언어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상호작용은 유아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유아의 심리적, 인지적, 언어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박민정, 이병인, 2010).

유아의 언어발달은 유아교육기관에서 또래와의 언어적 상호작용 및 또래 관계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다문화가정의 유아 중 다수는 언어적인 어려움을 갖고 유아교육기관에 입학하고 있다. 유아교육기관에서는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갖고 있으며 유아교육기관에서 부모와 소통의 부족으로 나타나는 다문화가정 유아의 문제행동이 또래 유아와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금지윤, 2008). 다문화가정 유아들은 언어능력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유아교육기관에서 학습에 어려움을 가질 뿐만 아니라 활동에 소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한다. 따라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 유아를 위해 유아교육기관에서의 개별적인 도움과 지원이 요구된다.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언어활동은 다문화가정 유아에게 개별 및 집단의 형태로 언어적인 지원이 가능한 특성을 갖는다. 유아의 언어활동에 관한 연구에서는 유아가 기관에서의 언어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경험을 대입시키고 활용하면서 지식을 재구성한다고 하였으며 또래유아와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의사소통의 능력이 발달된다고 보고하였다(장정윤, 2013). 연령이 낮은 만 3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만 3세 유아의 언어활동이 유아의 의미 구성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이해능력을 향상시킨다고 하였다. 유아는 언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식을 구성해 가면서 자신의 경험을 재구성하며 또래와의 긍정적 관계형성을 할 수 있다. 유아의 경우도 언어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언어적 자극과 환경을 제공하여 언어 및 놀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하면, 이들의 언어능력은 향상될 수 있다.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는 주로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양육의 어려움과 자녀의 발달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되었다.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와 관련된 연구로는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 발달의 실태를 연구하거나(유승애, 2009) 동화나 그림책을 활용하여 다문화가정 유아에게 언어활동을 실시하고 효과를 검증한 연구가 있다(김갑순, 김태인, 2012; 김주원, 2012). 그러나 본 연구와 같이 유아교육기관에서 전체학급 유아와 함께 언어활동을 통해 만3세 다문화가정 유아를 대상으로 언어적으로 지원한 실험연구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따라서 유아교육기관에서는 다문화가정 유아들의 언어활동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며 다문화가정 유아와 일반 가정의 유아가 상호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언어활동을 하고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유아교육기관에서는 다문화가정 유아를 보다 실제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다문화가정 유아가 유아교육기관에서 느끼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들의 언어적 지원에 관한 노력도 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만 3세 초롱반 다문화가정 유아가 유아교육기관에서 경험하고 있는 언어 및 상호작용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활동지원을 위한 교육활동 개선과정과 다문화가정 유아의 변화는 어떠한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교육기관에서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활동 지원 및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적응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문제

이러한 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만 3세 초롱반의 다문화가정 유아를 위한 언어활동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둘째, 만 3세 초롱반의 다문화가정 유아를 위한 언어활동의 개선과정은 어떠한가?

셋째, 만 3세 초롱반의 다문화가정 유아를 위한 언어활동 개선과정에서 나타난 유아의 변화는 어떠한가?

3. 연구자의 배경

연구자는 2004년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현재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연령의 영유아를 지도한 경험을 갖고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경력 8년 동안 초임 교사시절부터 불과 2~3년 전까지만 해도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어린이집에 입학하는 경우는 드물었으나 서울시 보육포털을 통한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자 시스템이 진행되면서 다문화가정 자녀의 입학 순위가 우선순위로 등록되었다. 그러면서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어린이집에 입학하는 경우를 빈번하게 자주 볼 수 있었다. 어린이집에 입학하는 다문화가정 유아의 가정을 살펴보면 해외에서 이주해 오거나 어머니 또는 아버지 모두 외국인인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결혼이민자이며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가 더 많았다.

본 연구자가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했던 때에는 다문화에 관련된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았다. 그렇기에 다문화에 대한 개념이나 지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많이 부족했고 실제로 현장에서 다문화가정을 접할 기회가 없었다.

본 연구자가 근무하고 있는 A어린이집은 2010년부터 꾸준히 다문화가정 유아가 입학을 하고 있다. 현재 만 3세 초롱반 유아 중 다문화가정 유아는 3명이며 어머니의 국적은 베트남, 중국, 우즈베키스탄인 결혼이민자로서 결

혼을 하면서 한국으로 이주해온 경우이다. 간단한 대화는 가능하지만 어머니와 긴 대화는 물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때는 어머니 외에 다른 보호자를 통한 전달이 필요하였다. 다문화가정의 유아들은 언어능력의 부족으로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시도하기를 거부하거나 어린이집 생활에 대한 흥미를 잃어가는 모습도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또래 유아와의 상호작용 오류로 잦은 다툼이 생겨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하였다. 언어로 표현을 하기 보다는 폭력적인 행동을 하거나 놀잇감을 빼앗는 등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자유선택활동이 이루어지며 활동이 지속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다문화가정 유아에 대해 연구자인 교사는 고민하게 되었다.

교사는 다문화가정 유아가 입학하게 되면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이 겪고 있는 어려움 또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였다. 다문화가정의 입장에서 어린이집 생활의 다양한 프로그램 및 일상생활에 대한 안내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다문화가정 유아가 겪는 어린이집 생활에서의 문제와 어려움은 일반 가정의 유아가 겪는 어려움과 문제와는 다른 양상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다문화가정 유아의 어려움을 알고 싶었고 이러한 다문화가정 유아를 위한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이러한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적 표현능력을 도울 수 있는 언어활동의 지원방법을 연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다문화가정 유아가 또래 유아와의 관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보고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Ⅱ. 이론적 배경

1. 다문화가정의 개념 및 현황

1) 다문화가정의 개념

급격한 경제발전과 세계화속에서 우리나라 역시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사회에서 우리나라는 다문화가족과 함께 할 준비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다문화가정’은 현재 국내에 정주하고 있는 국제결혼가정을 통상을 의미하며 사회적 합의가 진행되어 다민족, 다문화의 열린 사회를 현실로 인정하고 편견과 차별이 없는 사회적 통합을 이끌고 인식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정순연, 2008). 이러한 다문화 사회는 다양한 문화와 가치, 태도를 형성하고 있는 구성원간의 고유한 특성을 인식함과 동시에 공존과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Webster(1993)는 다문화를 일컬어 단절된 문화들을 연결시키고 반영하고 적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즉 다문화가정이란 서로 다른 사회,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다른 종족 간에 이루어진 가족 공동체, 즉 이중문화 가정이라 볼 수 있다(금지윤, 2008, 재인용).

문화는 자율적인 체계나 독자적인 영역을 갖고 있는 정치, 경제, 종교와는 달리 한 나라와 민족이 갖는 생활양식에 대한 총체적 표현이며, 공통된 생활양식으로 인해 타민족과는 구분되어 변화되고 발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문화는 인종·민족·언어·종교·성·장애 등을 포괄하는 말이다. 즉 여러 유형의 문화가 하나의 제도권 안에서 서로 상호교류를 통해 형성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같이 형성된 다문화사회는 미국과 캐나다처럼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공유하며 국가를 이루거나,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과 같이 근대화와 세계화로 인해 부족해진 노동력을 외국인근로자로 대체하여 유입

되면서 이루어졌다. 세계화로 인해 부족해진 노동력을 외국인근로자로 대체하여 유입되면서 형성된 한국의 다문화사회는 서구 유럽국가와 마찬가지로 외국 노동력의 유입으로 인한 이주근로자와 1990년대 이후 결혼이민자의 증가에 따라 나타난 결과이다(서종남, 2010).

급속히 통합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여러 국가의 문화를 이해하고 자유롭게 접할 수 있는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이를 위해 상호 존중과 더불어 문화적 차이를 중시하고 인정하여야 한다.

다문화가정의 형성은 현대사와 함께 변화하였으며 1950년 한국전쟁 이후 한국여성과 미군병사의 결혼으로 미군 기지의 기지촌주변 다문화가정을 형성해 갔다. 1980년 경제성장과 더불어 부족한 노동자의 유입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되면서 구성된 가족이 증가되었으며 한국인의 해외진출 또한 다문화가정의 증가에 새로운 유형으로 나타났다. 1990년 이후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족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의 일환으로 국제결혼을 추진하면서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국제결혼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을 다문화가족의 주체로 포함시킬 수 있다. 그리고 최근 대두되는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족이나 외국인과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 등도 다문화가족으로 볼 수 있다(금지윤, 2008).

조미영(2011)에 따르면 다문화가정은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일환으로 1990년 이후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보았다.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취업이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가족을 동반하여 거주하거나, 국내에서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다양한 다문화가정은 우리 주변에서 다양한 형태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인 것이다.

2) 다문화가정의 현황

오늘날 한국 사회는 급속히 다인종·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더불어 다문화가정의 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2012)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 혼인 건수 중 국제결혼은 2000년 11,605건 이었던 것이 2004년에 이르러 34,640건을 기록하였다. 더불어 2010년 34,235건, 2011년 29,762건을 차지하고 있다. 총 혼인 건수당 외국인과의 혼인 비중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 2011년 혼인통계 결과

단위:명

| 구분 | 2000 | 2002 | 2004 | 2006 | 2008 | 2010 | 2011 |
|-----------|---------|---------|---------|---------|---------|---------|---------|
| 총 혼인건수 | 332,090 | 304,877 | 308,598 | 330,634 | 327,715 | 326,104 | 329,087 |
| 외국인과의 혼인 | 11,605 | 15,202 | 34,640 | 38,759 | 36,204 | 34,235 | 29,762 |
| 총 혼인 중 비중 | 3.5% | 5.0% | 11.2% | 11.7% | 11.0% | 10.5% | 9.0% |

출처: 통계청(2012) <http://www.liveinkorea.kr> 다누리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국제결혼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다문화가정을 이루는 혼인 건수 중 남성의 결혼이민자가 차지하는 수는 전체 220,687명중 23,898명이며 혼인 건수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96,787명으로 전체의 89%를 차지하고 있어 여성결혼이민자의 수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국제결혼은 대부분이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간의 결혼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제결혼증가 현상에 관한 연구에서는 여성의 고학력과 경제활동의 참여로 인해 결혼에 대한 기피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농촌생활을 기피하며 농어촌에 거주하는 남성들은 국내에서 배우자를 찾지 못해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것을 주요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외국인 결혼이민자들의 증가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국제결혼증가율

단위:명

| 구분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
| 한국남자+ 외국여자 | 6,945 | 9,684 | 10,698 | 18,750 | 25,105 | 30,719 | 29,665 |
| 구분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 |
| 한국남자+ 외국여자 | 28,580 | 28,163 | 25,142 | 26,274 | 22,265 | | |

출처: 통계청(2012) <http://www.liveinkorea.kr> 다누리

한국인 남성과 외국여성의 혼인은 2000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증가와 함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들 결혼이주여성의 자녀들은 학령기에 접어들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만16~18세의 자녀는 전체 5.1%를 차지하는 반면 만6세 이하의 자녀의 비율은 62.1%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안전행정부, 2012). 다문화가정의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3> 다문화가정 자녀의 연령별 현황

| 구분 | 계 | 만6세 이하 | 만7~12세 | 만13~15세 | 만16~18세 |
|-----|---------|---------|--------|---------|---------|
| 자녀수 | 168,583 | 104,694 | 40,235 | 15,038 | 8,616 |
| 비율 | 100% | 62.1% | 23.9% | 8.9% | 5.1% |

출처:안행부(2012)<http://www.liveinkorea.kr> 다누리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한국의 혼인 중 외국인과의 혼인이 증가하고 있으

며 그 중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혼인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국제결혼의 증가로 다문화가정의 자녀의 수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에 이르러 이러한 자녀들의 연령은 한국의 유아교육기관의 입학시기인 만0세 ~ 만5세에 접어들었고 그 비중은 다른 연령의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수의 62.1%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황을 근거로 볼 때, 유아교육기관에 입학하는 다문화가정 유아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2. 다문화가정의 어려움

다문화가정의 급증으로 다양한 연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다문화가정의 증가와 더불어 다문화가정의 이혼 역시 늘어가고 있다. 한국의 총 이혼 건수별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의 이혼 역시 2004년 1,567건에 해당했으며 2011년에 이르러서는 8,349건에 달했다. 이것은 한국의 총 이혼 건수 114,284건의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가정의 이혼률의 증가는 다문화가정이 겪는 어려움으로 이해할 수 있다(조미영, 2011).

다문화가정의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의 문화 적응, 언어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자녀양육의 어려움,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한 어려움 등을 보고하고 있으며 결혼이주여성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으로는 한국문화에 대한 어려움과 더불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더불어 자녀양육의 많은 한계를 느낀다고 보고하고 있다(봉진영, 2011). 자녀양육 및 교육이 필요한 시기에 어머니 자신도 한국 사회 적응의 단계에 있으므로 외국인 어머니로서 자녀를 키우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한국사회가 자녀들의 양육에 아버지의 역할보다는 어머니의 역할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주여성들이 교육을 전담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양육환경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봉진영, 2011).

조미영(2011)의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이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는 어려움으로 한국어 이해의 부족, 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한 이해 부재, 경제적 문제, 양육문화의 차이, 한정된 인간관계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에 있어 자녀의 행동의 이해부족과 자녀의 발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언어적 자극이 부족하여 자녀의 언어발달의 지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영유아기의 언어발달지체는 또래 유아와의 의사소통에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나타내며 다문화가정 유아의 제한된 경험을 제공하게 된다(박민정과 이병인, 2010).

다문화가정 자녀는 학교의 부적응을 나타냈으며 다문화가정 자녀는 교육 환경에 있어 일반 가정에 비해 열악한 환경이 현실이며 부모의 낮은 사회적 지위와 언어, 문화, 교육방식의 차이로 학교생활의 적응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더불어 이러한 부적응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사회적 소외감을 갖게 되며 자신감의 상실로 이어지고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는 성장과정에서 오는 자아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고 이러한 성장 속에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는 부모의 문화를 거부하고 우리 사회의 경험하는 문화적 정체성 사이에 혼란과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김주원, 2012).

오성숙(2009)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는 언어학습이나 정체성 및 대인관계에서 일반가정 유아에 비해 문제점을 나타냈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이 나타났다. 언어능력의 혼란은 또래 유아와의 상호작용시 위축감을 갖게 되고 상호작용의 소극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한편으로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적응 등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의 적응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등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박민정과 이병인(2010)의 연구에 의하면 다문화가정 유아들은 교육기관의 적응에 어려움으로 교수활동의 참여의 어려움과 놀이 활동 참여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고 있으며, 박주희, 변길희, 심성경(2008)의 연구

에서는 다문화가정 유아의 발달이 또래 일반가정 유아에 비해 전체적으로 느린 수준이라고 보고 하였다.

3. 유아의 언어 발달

1) 언어교육의 필요성

언어란 음성이나 문자를 통하여 생각을 표현하는 인간의 의사소통으로 사회 공통의 체계이다. 언어의 사용의 인간의 주된 특징 중 하나이며 인간은 끊임없는 자기표현과 더불어 의사소통의 본능을 갖고 있다. 언어는 의사소통에 있어 필수적인 조건이며 언어를 통해 인지하며 다양하고 고유한 삶의 태도와 정서, 정신을 형성해 나간다.

과학적 사회주의자 엥겔스(Engels)는 “교육은 학생과 교사의 만남과 대화의 관계이다.” 라고 정하며 교육에서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정남미, 2009, 재인용). 언어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사람은 의사소통을 통해 자유로움과 편안함을 갖는다. 의사소통을 통해 사람은 자신감과 원만한 대인관계로 성공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의사소통이 서툰 사람은 대인 관계가 좋지 못하고 그에 따라 실패와 좌절, 소외감을 느끼기 쉽다(정남미, 2009).

인간은 언어를 통하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며 사회에서의 개인의 중요한 이해와 가치 및 태도 등을 배우게 되며 교육을 통해 이를 수 있다(김지영, 2013). 언어교육을 통하여 유아는 다른 타인과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 성공적인 적응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교육을 통한 유아의 언어사용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아가 사회 적

응과 더불어 사회환경에 대한 적응을 위해 유아 언어교육이 필요하다(오지영, 2009). 유아는 언어교육을 통한 또래 관계를 형성하고 의사소통 기술의 발달은 유아와 유아, 유아와 부모, 유아와 교사와의 관계형성에도 큰 영향을 준다(정남미, 2009). 이렇듯 언어교육은 타인과의 의사소통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학습의 도구이며 외부세계와의 연결을 의미하는 것이다. 유아의 내적인 사고과정을 돕는 도구로서의 역할하며 언어교육을 통하여 유아에게는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언어교육을 통하여 대리경험을 갖는다. 대리경험은 간접 경험이라고 하며 새로운 정보나 경험하지 않은 과거등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간접 경험 또는 대리경험은 새로운 기술, 지식, 태도 등을 개발하고 형성하며 확장시킨다(이차숙, 2005). 언어는 학습의 기본이 된다. 언어교육을 통하여 교사의 지시를 듣고 이해하며 자신의 느낌, 이해수준을 말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유아들은 여러 가지 교재와 놀잇감을 통하여 효과적인 언어교육을 이룰 수 있다(김경아, 이경화, 이성숙 2010).

이렇듯 유아에게 있어 언어의 교육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필수요소이다.

2) 만 3세 유아의 언어 발달 특징

언어적 발달에서 유아기는 주변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언어발달을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사람들이 시용하는 언어는 인지적인 활동을 할 때에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한다.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내 자신의 욕구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초가 된다. 울음에서 시작된 영아의 언어는 3~4개월이 되면 웅얼이를 시작하고, 출생 후 1년 정도 지나면 주위의 소리를 인식하고 타인의 소리를 모방하고,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려고 한다. 또 2세경이 되면 상황에 따라 음성의 크기 및 음색의 강약을 조절하고

간단한 질문에 답을 하면서 성장하게 된다.

대부분의 영아들은 언어를 습득하는 데 있어 같은 발달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새로운 단어의 획득이 급속해지는 3세경에 이르면 유아들은 ‘~이었다, ~했었다’와 같이 과거를 나타내는 시제 사용하며, ‘나는 공을 본다.’와 같이 주어-목적어-동사가 나타나는 문장을 사용하며, 관계를 알고 3가지 정도의 지시를 수행할 수도 있다. TV 만화 프로그램이나 비디오를 보고 대장의 줄거리를 알게 되고, 전화를 받고 가끔 대꾸도 할 수 있게 되며, 가족의 이름을 알 수 있다. 간단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다른 사람의 대화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려 하며, 의문이 나면 즉시 질문하고 5단어로 구성된 말을 할 수 있게 된다(정혜숙, 2012).

만3세 유아는 어순에 기초하여 문장을 이해할 수 있게 되며 이시기의 유아는 유아가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의 2배 이상의 단어를 이해하며,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사용하던 문장을 더욱 복잡하고 정교하게 만들어 사용한다. 이 문장을 만들기 위해 규칙을 적용하게 된다. 어휘 발달 또한 가장 급격하게 일어나는 시기이므로 이시기를 ‘어휘 폭발의시기’라 한다. 네 단어 혹은 그 이상의 단어를 사용하는 문장을 말할 수 있으며, 글자와 그림, 사물과 사람에 대하여 끊임없이 질문하게 된다. 또한 네 단어 이상의 문장을 사용하면서 접속사, 문법적 형태소, 단수와 복수, 과거와 현재 등 올바른 문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더 많은 말을 듣고 말하게 된다(김주원, 2012). 또한 이시기의 유아는 새로운 것에 호기심과 질문이 많아지고 사물의 이름이나 새로운 낱말을 알고 싶어 하며, 질문하는 것을 즐겨 계속 같은 반복 등의 언어적 발달 특성에 의해 어휘, 발음, 문장구성능력 등이 급속히 발달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교사, 또래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즐기며 리듬을 지닌 단어나 반복, 반복 문장의 이야기를 즐겨 듣고 모방하는 것을 즐긴다. 또한 말하는 것을 즐기고 말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가 가능해지며, 단순 문장에서 접속사, 조사 등을 사용한 긴 문장을 말할 수 있다. 아직은

부정확한 형태지만 의문문과 부정문을 구사할 수 있다. 만 3세 유아는 대부분 의미가 명료한 말을 하며 긴 문장을 사용하게 된다. 바로 이 언어능력의 발달로 또래 간의 상호작용이 증가하게 되면서 또래간의 갈등도 생겨나고 이를 해결하려는 사회적 문제기술 또한 나타나기 시작한다(임은주, 2010).

3)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 발달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발달은 또래 유아의 언어발달에 비해 전체적 미숙하고 느린 수준이며 이러한 언어발달은 결혼이민자 여성들이 한국사회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과 더불어 자녀양육에 있어 극히 제한된 언어적 자극을 제공하는 것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박주희, 변길희, 심성경, 2008). 다문화가정 유아는 언어능력의 혼란으로 또래 유아와의 상호작용시 위축되고 소극적인 태도로 나타난다. 이러한 다문화가정 유아는 유아교육기관에서 활동이 이루어지는 동안 자연스럽게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행동을 나타나게 되며 또래와의 관계형성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오성숙, 2009).

다문화가정 유아의 상호작용으로는 언어능력의 수준이 낮음으로 인해서 적응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주변의 눈치를 살피고 모방하기를 하며 낮은 언어능력 수준으로 인해 교사와 또래의 말을 눈치로 알아듣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어머니의 한국어 수준이 낮음으로 인해 유아교육기관의 적응의 어려움을 갖고 부모의 양육태도도 인하여 유아의 언어능력의 수준이 낮거나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낮은 수준을 보인다. 반면 소극적인 태도와는 달리 또래와 상호작용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또래 유아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나타내거나 제한된 관계형성을 보이며 유아교육기관의 적응에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박민정, 이병인, 2010).

Hanson(1995)은 다문화가정 유아들이 언어발달이 늦은 이유를 생물학적 원인으로 보았던 과거와는 달리 현대 사회에서 환경적인 원인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다문화가정 유아들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언어적 모델을 바르게 제시할 수 있는 성인이나, 또래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충분히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이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유승애, 2009). 오성숙(2009)의 연구에 따르면 잘못된 언어능력은 유아의 자아 정체감 및 성적발달에도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발달을 위한 지역사회적 전반적 의사소통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발달을 돕기 위하여 유아교육기관에서는 다양한 언어적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발달을 위해 교사는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의 중요함을 인식할 하고 더불어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발달을 위한 다양한 자극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박주희, 변길희, 심성경, 2008).

김갑순과 김태인(2012)의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유아들은 일반가정의 또래유아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또래유아로 하여금 언어적 호응과 반응으로 언어를 확장하고 표현하면서 언어활동을 즐기고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3. 선행연구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최근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 발달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와 유아교육기관 적응과 관련된 연구, 다문화가정의 어머니와 관련된 연구가 있다.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활동에 관한 연구로는 다문화가정 유아의 또래간의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음악극 프로그램 연구, 다문화가정의 유아 언어발달을 위한 동화표현활동 연구, 다문화가정 유아의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이 수용언어 및 표현 언어 능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 그림동화책을 활용한 통합적 문학 활동이 다문화가정 유

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 등이 있다.

이처럼 다문화가정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설문지 혹은 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한 양적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언어활동을 개선하는 실험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금지윤(2008) 유아교육기관의 다문화가정 유아 지도 및 현황과 교사의 요구에 관한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유아의 한국어 능력과 그 부모의 한국어 능력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모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밝혔고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다문화가정 유아는 혼자놀이나 공격적인 행동, 자신의 가족에 대한 숨김, 한국음식에 대한 거부감 등의 행동은 별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교사로부터 인정받으려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적인 다문화가정 유아 지도를 위해 교사들이 필요로 하는 것 중 교사 자신의 다문화교육에 관련한 지식과 이해, 모든 유아를 동등하게 대하려는 열린 마음과 태도 등이 꼭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 발달 실태에 관한 연구로 유승애(2009)는 다문화 유아의 수용어휘가 4,5세의 경우는 일반 유아들보다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지체됨을 나타냈으며 듣기·말하기 발달 실태를 일반 유아들과 비교하였을 때 듣기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일반 유아와 비슷한 발달 수준이었으나, 말하기는 모든 연령에서 일반 유아에 비해 지체가 있었다고 보고 하였다. 다문화 유아들이 표현 할 수 있는 상호작용의 기회가 일반 유아에 비해 적음을 시사하였다. 따라서 언어발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인 유아기에 질 높은 언어적 중재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서로 다른 모습, 다른 생김새,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하더라도 함께 어울리며 언어, 지적 발달 및 사회기술 발달에 대한 기회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김갑순과 김태인(2012)의 그림책 중심의 언어활동을 통한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적 변화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유아는 일반가정 유아와의 상호작

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언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다문화가정 유아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배려의 행동을 가지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그림책을 읽은 후 연관활동을 하며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문화 유아의 언어능력이 향상됨을 볼 수 있었으며 활동 초기에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고 언어표현에 대해 어색해하던 다문화가정 유아들이 일반 유아와 함께 연관 활동을 통해 변화를 보였다고 하였다.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보다 다각도로 분석해 봄으로써 본 활동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구체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오성숙(2009)의 연구에서 다문화가정 유아는 또래와 언어적 상호작용에서 소극적인 태도, 침묵하기, 웃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등의 비언어적인 표현을 자주 사용하였다. 또한 문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완성된 문장보다도 단문 또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였다. 유아의 언어발달을 위해서는 심리적으로 안정된 가정환경, 즉 가족 간의 협력적이고 원만한 관계형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것을 토대로 한 언어적 표현의 기회를 풍부하게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박민정과 이병인(2010)의 다문화가정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유아가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에 많은 제한이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유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고, 부모의 양육태도가 다문화가정 유아가 유치원 적응의 어려움을 갖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다문화가정 유아와의 상호작용은 유아의 심리적, 인지적, 언어적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상호작용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김규수, 조운영, 조진희(2012)의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능력과 또래 상호작용연구에서는 또래놀이 상호작용의 수준에 따라 다문화가정 유아의 어휘력이 차이가 나타났으며,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수준에 따라 다문화가정

유아의 어휘력이 차이와 교실 문해환경의 수준에 따라 다문화가정 유아의 어휘력이 차이가 나타남을 밝혔다. 또한 긍정적인 또래놀이가 활발히 일어나고 놀이 단절이 적을 때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능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교실 문해환경이 풍부하게 제공되며 교사-유아의 상호작용이 잘 일어날 때 유아의 언어능력이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다문화가정 유아가 충분한 문해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풍부한 도서와 쓰기를 촉진해주는 잘 구성된 문해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안지혜(2012)의 연구에서는 문학 활동이 다문화가정 유아의 개인정서 조절능력을 향상시켰으며 유아교육기관의 적응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다문화가정 유아는 환경적인 요인으로 언어능력의 어려움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유아교육기관에서 또래와의 상호작용과 활동의 소극적인 참여 등의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가정 유아를 배려한 환경의 제공과 긍정적 상호작용의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실제로 연구된 사례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활동 개선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실행연구

실행연구란 이론적인 정립보다는 실천의 개선에 중점을 두고 반성적 실천의 자기순환과정을 강조하며 교육현장과 실천분야에서 적합한 연구방법이다. 교사는 연구자로서 자신이 실행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을 개선하고 적용하며 자신과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교사들에게도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반면 교사는 시간과 자원이 제한되어 연구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지만 중요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기술과 경험을 습득함으로써 전문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이용숙, 2005). 실행연구는 교사가 자신의 교육현장에서 개선하고 싶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개선해나가고자 직접 실행을 통하여 교사 자신뿐만 아니라 학교 환경, 관련된 학생들과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전통적인 교육연구와는 달리 실행연구는 교사가 자신과 학생을 대상으로 자신이 몸담고 있는 학교와 교실에서 실행을 통해 긍정적인 교육적 변화로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교사에 의한 실행연구는 이론적 연구와 실제사이에 이를 증명하고 실천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현장에서는 교사의 이론을 실행하며 실행연구의 방법을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여 해결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할 수 있다(조성은, 2012).

본 연구자는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적 활동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방안의 필요성을 느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사가 인식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실행연구를 하였다.

2. 연구대상

1) A어린이집

연구자가 재직하고 있는 A어린이집은 서울에 위치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교육철학으로는 영유아의 발달적 잠재력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개별적인 학습과 상호작용을 존중하는 발달적 상호작용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교육활동은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신장하고 영유아 스스로 활동을 선택하는 자유놀이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놀이를 하면서 영유아가 자연스럽게 창의력, 문제해결과 사회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하도록 하며 교사는 영유아의 발달 수준과 흥미를 파악하며 교실에서 영유아가 참여할 수 있는 활동영역을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영유아와 교사 간 상호작용과 또래 간 상호작용을 강조하여 영유아가 사회, 인지, 정서, 언어, 신체발달 등 전인적 발달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실시하고 있다.

A어린이집은 주변에 의류상가가 밀집되어 있으며 의류를 제작하는 공장들이 어린이집 주변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주 노동자와 더불어 결혼 이민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그로인해 자연스럽게 다문화가정의 유아의 입학신청이 많은 곳이다.

더불어 다문화가정의 학부모와 유아를 위한 적응 프로그램은 물론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다문화가정 학부모에게 많은 입학 문의 전화를 받는 곳이며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만족도와 신뢰도가 높은 편이다. 이는 학부모 만족도 설문지나 보육포털의 대기자 등록이 주변 국공립 어린이집의 대기자 등록순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A어린이집은 주민자치센터와 함께 5층 건물 중 3층에 위치하고 있다. 5

층에는 주민센터와 함께 사용하는 강당이 있고 옥상에는 놀이터가 위치해 있다. 지역사회연계프로그램으로 주민센터와 함께 어린이집 유아들의 다양한 지역 연계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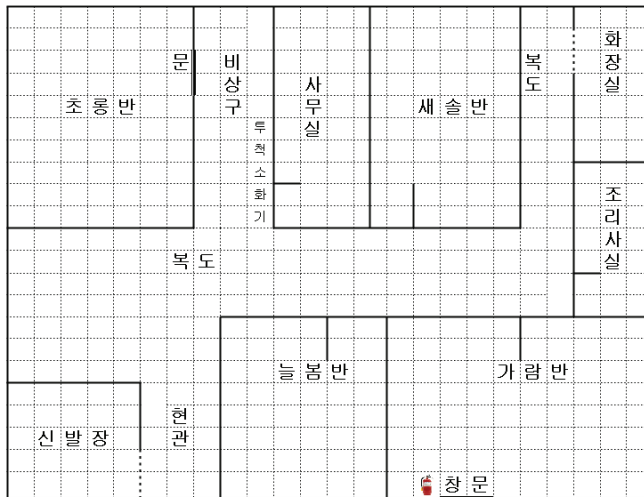
원아는 만 1세 5명, 만 2세 12명, 만 3세 15명, 만 4세와 만 5세의 혼합 연령반으로 20명으로 각 한 학급씩 총 4학급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변 학부모들로부터 지원이 많은 어린이집으로 학부모가 직접 어린이집 등 하원을 하고 있으며 차량운행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교사는 총 9명으로 원장, 주임, 교사 4명, 시간연장 교사 1명, 부담임 1명, 조리사 1명이 있다. 각 반 담임들은 4년제 대학과 2년제 대학에서 유아교육 및 아동교육을 전공하였으며 6년 ~ 15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영유아의 등원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로 대부분의 어린이집 영유아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전 후로 등원과 귀가를 하고 있다. 또한 시간연장반을 오후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어 직장에 다니는 학부모를 배려하여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다.

A어린이집의 배치도와 실내 환경 구성, 실외 환경은 다음과 같다.

<표 4> A어린이집 배치도



2) 만3세 초롱반

본 연구자가 담임교사인 초롱반은 만 3세 유아 15명이 재원하고 있으며 시간 연장 교사가 보조교사 역할을 하고 있다.

어린이집 특성상 만 3세 초롱반 유아들의 학부모들은 의류시장에서 옷을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거나 옷을 만드는 공장에서 근무를 하는 학부모들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만 3세 초롱반 유아는 남아 10명, 여아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다문화가정의 유아는 3명으로 남아 2명, 여아 1명이다. 만 3세 초롱반 유아의 경우 다른 반에 비해 남아와 여아의 비율이 2배이상 차이가 난다.

교실에는 한쪽 벽면이 모두 창문으로 되어있어서 따뜻한 햇볕을 바로 받을 수 있어 자연채광이 좋은 편이다. 유아가 낮잠을 잘 경우 커튼이 있으며 이 커튼은 방염처리가 된 커튼을 사용하고 있다. 교실 벽면은 하늘색의 파스텔톤으로 유아들의 생활하기에 안정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며 온돌 난방시설과 에어컨이 설치되어있다. 흥미영역은 쌓기·역할, 수조작, 과학, 미술, 언어, 음률 영역으로 교재·교구가 제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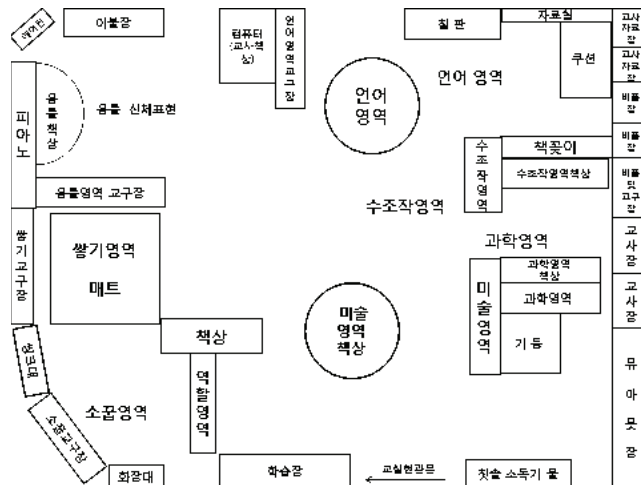
등원시간과 하원시간에는 모두 학부모가 등 하원을 시켜 주고 있으며 등원과 하원을 할 경우 외부에 설치되어있는 벨을 이용하여 CCTV를 통해 학부모를 확인하고 교사가 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해야만 어린이집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초롱반 유아들의 등원시간은 학부모의 출근시간에 따라 조금씩 다르며 보통 9시 30분에 등원한다. 유아는 현관앞에서 신발을 벗어 신발장에 신발을 정리하고 교실에 들어오며 교실에 들어와 오른쪽 벽면에 비치되어 있는 가방장에 가방을 정리하고 원아수첩과 언어전달장을 바구니에 정리한다.

교사는 유아가 활동한 내용 등을 기록하거나 활동에 대한 평가 등을 유아와 상호작용하면서 이야기를 나눈다. 오후 자유선택활동시 참고 한다. 정리

정돈과 함께 화장실에 다녀오며 손을 씻는다. 이때 유아들은 가정에서 준비한 수건을 갖고 화장실에 가며 이 수건의 경우 개별 수건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염병이나 개인 위생을 위한 배려이다. 교사와 학부모가 유아와 등하원을 하며 직접 만나 유아의 하루일과나 건강 상태등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오후 5시 어린이집의 남아 있는 유아들은 통합반을 운영하여 늦은 유아들의 귀가를 돕는다. 만3세 초롱반의 하루 일과는 다음과 같다.

<표 5> 초롱반 하루일과 및 교실 배치도

| 시간 | 활동 |
|---------------|--------------------|
| 7:30 ~ 9:20 | 등원 및 자유선택활동 |
| 9:20 ~ 10:00 | 개별 간식지도 |
| 10:00 ~ 11:30 | 오전 자유선택활동 |
| 11:30 ~ 11:50 | 대집단 활동 및 소그룹 활동 |
| 11:50 ~ 1:30 | 점심식사 및 양치지도 |
| 1:30 ~ 2:30 | 특별활동 프로그램 실외 활동 |
| 2:30 ~ 3:30 | 낮잠 및 휴식 |
| 3:30 ~ 4:00 | 오후 간식 |
| 4:00 ~ 5:30 | 오후 자유선택활동 및 귀가지도 |
| 5:30 ~ 7:30 | 귀가지도 |



3) 만 3세 초롱반 다문화가정 유아들

본 연구자가 근무하고 있는 A어린이집에 다문화가정 유아가 입학하였다. 만 3세 초롱반은 여아 5명, 남아 10명 총 15명의 유아들로 구성되어있다. 이 중 다문화가정의 유아는 여아 1명, 남아 2명이며 다문화가정 유아에 대한 소개는 다음과 같다. 만 3세 초롱반 다문화가정 유아는 모두 가명을 사용하였다.

(1) 김주원

주원의 어머니는 우즈베키스탄국적으로 주원이 어머니의 할아버지는 고려인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한국 대학교의 어학당에 입학하여 주원이 아버지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다. 한국에서 생활한지 6년째가 되었지만 어머니의 발음이 어눌하고 부정확하여 두 세 번 확인하는 경우가 있었다 주원이이는 어머니의 어눌하고 부정확한 발음으로 대화를 하여 또래 유아들이나 교사와 상호작용시 어려움이 있었다.

교사: 주원아 안녕하세요?

주원:

교사: 주원아 아침밥 먹고 왔어요?

주원: (고개를 흔든다)

교사: 그렇구나. 오늘 오전 간식은 죽인데 주원이 죽 많이 주어야 겠네. 배고프겠다.

주원이는 간식 자리에 앉는다.

주원: 여기 (알아듣지 못한 소리로)

교사: 주원아 뭐라고? 다시 한번만 말해 줄래?

주원: (교사를 바라본다.)

교사: 그러네 여기 왜그래? 빨갈게 됐네?

주원: (교사를 바라본다.)

교사: 밴드 붙여 줄게

주원이의 손이 굵혀 있어 어머님과 통화를 하고 나서야 집에서 책을 보다가 책에 베인걸 알 수 있었다. 교사에게 손만 보여 줄 뿐 더 이상 주원이는 손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2012. 3.12 주원, 등원시간, 오전 간식)

주원이가 첫 등원을 할 때 주원이는 말을 하지 않았다. 또래 다른 유아와 주원이에게 말을 건네도 고개만 끄덕이거나 가만히 또래 유아만을 바라 보았다. 또래 친구들이 나누는 대화를 가만히 보고 있거나 다른 곳을 바라보며 장난감을 만졌다.

교사가 주원이에게 대화를 유도하고 대화를 이끌어 낼 때 ‘네’ 또는 ‘아니요.’ 로 대답하는 정도였고 그 역시도 고개를 끄덕이거나 고개를 저어서 의사표현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주원이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어린이집의 적응을 돕기 위해 주원이에게 말을 걸어도 돌아오는 대답은 간단한 대답 뿐이었다. 활동에 대해 관심은 있는지 다른 친구들과 조금더 이야기를 했으면 하는 교사의 바램은 항상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원이가 짧게 간단한 단어로 대해 이야기를 해도 또래 유아나 친구들은 주원이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였다.

(2) 박지연

2012년 3월에 입학한 지연이는 한국인 아버지와 베트남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지연이의 아버지는 지적장애를 갖고 있다. 처음 입학할 당시 지연이의 등·하원을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가 주로 해주셨다. 어머니는 지적장애인 아버지와 결혼을 하면서 한국에 처음 오게 된 것이다. 지연이의 어머니

나는 한국의 낯선 환경에 외출을 거의 하지 않고 가정에서 집안일과 아버지를 도우며 지냈기 때문에 연구자인 교사도 지연이의 어머니를 만날 수 없었다. 지연이가 어린이집에 다닌 후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외출로 지연이의 등·하원이 없을 경우에만 지연이의 어머니를 볼 수 있었다. 한국말을 전혀 하지 못한 어머니는 지연이와 ‘안녕’이라는 말이 전부 였다. 지연이의 준비물이나 전할 말을 위해 교사가 “어머님.” 이라고 부르면 교사를 바라보고 있을 뿐 전혀 교사의 말을 알아 듣지 못하였다. 또 교사가 이야기하는 것을 알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몰라요.” 라고 말하며 손을 흔들며 표현하는 것이 전부 였다. 교사는 어머니와 전혀 대화하지 못하고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지연이의 등·하원을 지도할 때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뿐이었다.

교사: 지연아 안녕하세요?

지연: (눈 깜빡임)

교사: 지연이 선생님이 가방정리하는 거 도와 줄까?

지연: (눈 깜빡임)

교사: 가방 정리는 이렇게 하는 거야.

(교사가 지연이의 옷을 정리하고 가방을 꺼내어 출석카드와 수건을 꺼내 주었다.)

지연이도 다음부터는 스스로 할 수 있겠지?

지연: (눈 깜빡임)

교사: 지연이 무슨 놀이부터 할까? 지연이 화장실가고 싶니?

지연: (눈 깜빡임)

지연이가 등원을 하여 교사를 바라본다. 지연이가 가방을 매고 그대로 교실 앞에 서있다. 교사가 지연이의 가방을 정리해 줄 것을 묻지만 지연이는 교사만 바라볼 뿐 어떠한 반응을 하지 않는다. 교사가 지연이의 가방을 정리하며 지연이의 물건에 대해 이야기를 해도 지연이는 지켜만 볼 뿐 어떠한 표현을 하지 않는다. 눈을 1초에서 2초 정도 감고 있다 뜬다.

(2012.3.5 지연, 등원 맞이)

지연이가 등원을 하여 또래 유아들이 “지연이 왔어요.” 라고 이야기하며 지연이에게 아는 척을 하여도 지연이는 가만히 교사를 바라보고 있다. 가방정리정돈을 하지 않고 옷을 입은 상태로 가만히 서 있다. 교사가 지연이에게 다가가서 가방을 벗겨 주고 옷을 벗겨 주려 지퍼를 내릴 경우에만 잠시 손을 빼는 행동을 한다. . 지연이의 가방과 옷을 정리해 준 뒤에도 교사가 지연이에게 자유선택활동을 할 것을 이야기해도 지연이는 가만히 교사만 바라본다. 지연이에게 가장 가까운 책상의 의자에 앉는다. 이렇게 가만히 앉아 친구들이 하는 놀이를 지켜 보는 경우가 많다. 지연이와 이야기를 하기 위해 교사가 지연이에게 다가가도 지연이는 교사의 물음에 눈을 깜빡거리기만 할 뿐 어떠한 말도 하지 않는다.

처음 지연이가 어린이집에 입학했을 때에는 전혀 표현하지 않고 가만히 친구들의 활동을 지켜보거나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초롱반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짐에 따라 친구들과 간단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래 유아들이 놀이를 하며 재미있는 상황에 지연이는 미소를 지어 즐거움을 표현했다. 신체표현 활동이 진행될 때에는 소리를 내기도 하고 제자리에서 점프를 하면서 미소짓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의사표현을 전달할 만한 한 문장의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감탄사 등의 간단한 표현을 할 뿐이다.

가정환경적으로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아버지와 한국어를 전혀 할 수 없는 어머니로부터 언어적 자극이나 반응을 기대하기는 힘들었기 때문이다. 지연이의 경우 자유선택활동시 영역활동은 물론 초롱반에서 이루어 지는 언어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연이를 위한 초롱반에서의 언어활동의 개선이 필요했다.

(3) 이형준

형준이는 2012년 3월 A어린이집에 처음 입학하였다. 주형이의 입학상담

은 친할머니와 친할아버지가 어린이집으로 방문하여 상담과 등록을 하였다. “형준이는 엄마가 중국사람이에요. 여기 꼭 다니게 해주세요.” 라는 말을 하시며 원장선생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며 1시간이 넘게 상담을 하고 돌아가셨다. 상담을 진행하시면서 할머니는 연신 형준이 이야기를 하시며 눈물을 흘리셨다고 한다. 2012학년도 대기자에 등록되어있는 유아에게 연락을 취하였고 마지막으로 형준이의 어린이집 입학이 결정되었다. 형준이의 주 양육자인 할아버지께 연락을 드렸고 어렵게 서류를 준비하셨고 입학하게 되었다.

형준이의 부모님은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이다. 어머니는 결혼이민자로 결혼을 하며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 결혼을 한건 6년 전이며 지금은 타 지역에서 아버님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다. 타 지역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형준이의 양육은 주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맡아 형준이를 돌봐 주신다. 주말이 되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형준이의 부모님이 하시는 가계로 형준이를 데려다 주신다. 형준이는 주말마다 부모님을 만날 수 있다.

원장선생님: 안녕하세요?

교사: 안녕하세요?

초롱반아이들: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오전 활동시 교실에 들어오신 원장선생님과 인사를 나눈다. 인사를 하고 아이들이 놀이 중인 활동을 진행한다.)

형준: 원장선생님. 전 형준입니다. 이것 보세요. 이거. 원장선생님 오늘 정말 예뻐요.

원장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원장선생님이 교실 밖으로 나간다.)

형준: 으. 잉.. (형준이가 운다)

교사: 형준아 왜 그래? 왜 울어?

형준: 원장선생님이 없어요.

(2012. 5. 14 형준, 오전 활동)

형준이는 반갑게 인사를 해주시는 원장님이 좋아 원장님이 교실에 들어오면 다양한 반응으로 원장님과 인사를 한다. 공룡 소리를 내어 원장님과 인사를 하거나 원장선생님에게 안기고 매달려 교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잡아 당기는 경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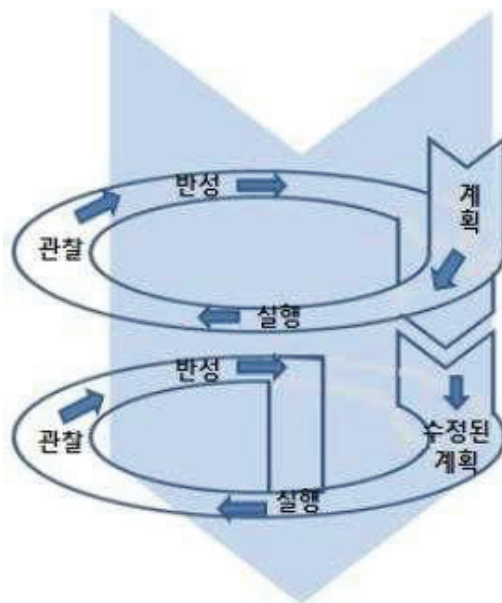
위 사례는 형준이가 원장선생님으로부터 관심을 받기 위해 원장선생님에게 인사를 하다가 원장선생님이 나가시자 울어 버렸던 사례이다.

형준이는 교사나 또래 유아에게 관심 받기를 좋아한다. 유난히 재미있는 표정을 지어 보이거나 공룡 소리를 내거나 바람부는 소리등을 내어 타인으로 하여금 형준이를 바라보도록 유도한다. 그런 형준이의 행동이 때로 지나쳐 부적절한 관심 표현하기로 나타기도 한다. 또래 유아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절한 표현을 통해 형준이에게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아닌 교실에서 뛰어 돌아다니거나 교구장에서 올라가 가는 등 또래 유아아가 모두 형준이를 바라 보게 하도록 하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표현한다. 이러한 행동은 타인으로 하여금 관심을 받고 싶은 긍정적 표현보다는 부정적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형준이는 두 돌이 지난 후부터 부모님과 떨어져 지냈다. 주말이 되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부모님이 하시는 가게 데려다 주시기 때문에 형준에 관해 상담이 필요할 경우 할머니에게 연락을 취한다. 형준이는 두 돌부터 조부모님과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한국말을 사용하기에 주원이와 지연이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어린이집 생활을 시작하면서 또래 유아나 교사와 상호작용을 하기에 주원이와 지연이와 같은 언어적 어려움은 없었다. 다만 타인의 관심을 과잉으로 원하며 타인에게 관심받기 위해 긍정적인 행동보다는 부정적인 행동을 나타냈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12년 8월 4일부터 2013년 1월 4일까지 실행하였다. 실행 연구의 과정은 Kemmis와 McTaggart(1998)가 제시한 나선형의 자기반성적 연구사이클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문제파악과 변화의 계획단계, 계획의 실천과 변화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관찰 단계, 결과에 대한 성찰(반성) 단계, 수정된 계획에 대한 관찰 및 반성의 반복 단계(이용숙, 2005 재인용)를 참고하였다.



[그림 1] Kemmis와 McTaggart의 자기 반성적 실행연구 사이클모형(이만석, 2010,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유아의 또래관계의 언어적 의사소통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행연구로 문제점

인식단계, 사전 계획단계, 1차 실행단계, 1차 실행평가, 2차 계획단계, 2차 실행단계, 2차 실행평가단계로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8와 같다.

<표 6> 연구일정 및 절차

| 단계 | 기간 | 실행 절차 |
|----------------|-----------------------------|--|
| 문제파악 및 연구계획 | 2012년 8월 4일 | -만3세 초롱반 다문화가정 유아의 활동 분석 -선행연구 분석 -실행 방안 모색 |
| | 2012년 10월 8일 ~ 11월 9일 | -1차 실행 -실행 후, 분석 및 평가 -2차 실행 방안 모색 |
| 실행 | 1차 11월 12일 ~ 12월 17일 | -2차 실행 -실행 후, 분석 및 평가 |
| | 2차 12월 17일 | -실행 후, 분석 및 평가 |
| 평가 | 2013년 1월 4일 ~ | -1, 2차 실행 후, 분석 및 평가 |

1) 1단계: 문제 파악 및 변화의 계획

초롱반의 다문화가정 유아가 2012년 3월 어린이집에 입학하여 다문화가정 유아의 관찰과 보육일지의 일일평가를 통해 다문화가정 유아의 활동모습을 분석할 수 있었다. 이에 대집단 활동에서의 소극적인 태도와 자유선택활동의 부재, 또래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적 상호작용 및 또래 관계증진을 위한 활동을 계획하였다.

2) 2단계: 계획의 실천과 변화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평가

다문화가정 유아가 초롱반에서 이루어지는 언어활동의 문제점을 기초로 언어활동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만 3세 초롱반에서의 대집단 활동은 사진 촬영을 통하여 기록하였고 자유선택활동시간은 유아의 놀이활동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전사하였다. 모든 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연구자는 다문화가정 유아의 관찰과 저널 쓰기를 하여 기록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정 유아들의 변화되는 모습 또는 일화과정을 사진촬영이나 기록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표 7> 1차 실행내용 및 과정

| 단계 | 기간 | 실행 절차 |
|--------|--------------------------|--|
| 실 행 | 1차 10월 8일 ~ 11월 9일 | 1. 대그룹 활동 (발표활동) · 주말지낸 이야기 (가정연계활동) · 나의 이야기- 너는 특별하단다. (가정연계활동) 2. 주제별 활동 · 쌀그림을 그려요. · 친구와 인형으로 이야기해요. · 반가워 친구야. · 글자카드 알아보기 |

3) 3단계: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반성

언어활동의 1차 실행으로 수집된 자료와 다문화가정 유아의 변화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며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사본이나 현장노트,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의 관찰일지와 저널쓰기를 토대로 다음 실행의 계획안을 작성하여, 2차시 언어활동을 준비하였다.

4) 4단계: 수정된 계획에 의한 실천과 관찰 및 이에 대한 반성의 반복

계획된 2차 활동을 토대로 11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4편의 통합적 그림책활동이 진행되었으며, 1차시에서 평가된 내용을 토대로 2차시 활동이 진행되었으며 지역사회의 협력으로 언어지도사의 지도로 다문화가정 유아의 개별 언어활동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현장 기록, 사진과 동영상촬영, 참여관찰과 언어지도사와의 면담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다음은 2차시의 실행 내용이다.

<표 8> 2차 실행내용 및 과정

| 단계 | 기간 | 실행 절차 |
|--------|----------------------------|---|
| 실 행 | 2차 11월 12일 ~ 12월 17일 | 초롱반 언어활동 계획 및 실행 1. 그림책을 활용한 통합활동 · 너는 누구니? · 내 친구 깡충이 · 꼬마 비버와 메아리 · 야! 비온다. 2. 다문화가정 유아 개별 언어활동지원 (지역사회 협력 프로그램) · 일상생활 어휘 사용하기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에 맞게 말하기 · 따라해 보세요. · 기본 어휘 익히기 · 기본 어휘 발음하기 · 어휘 문법 익히기 |
| | | 다문화가정 지원 교사와의 면담 |
| | | 초롱반 언어활동 평가 및 다문화가정 유아 개별 언어활동 평가 |
| 평가 | 2013년 1월 4일 ~ | 1차, 2차 실행에 초롱반 유아 변화 분석 |

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서 실행기간 중 관찰, 비디오 녹화, 교사 면담, 유아 면담, 저널 작성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만 3세 초롱반 다문화가정 유아를 대상으로 자유선택활동시간에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영역에서의 언어활동 관찰 및 언어활동을 진행하며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 개별 언어지도에서는 개별 언어활동이 이루어진 후 언어지도사와의 면담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

1) 참여관찰

참여관찰은 조직의 문화나 특정 집단의 생활상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자연 그대로 일어나는 상황과 활동을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기술하는 방법이다. (이용숙, 2005)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 본인이 교사이며 실행연구로 진행하게 되므로 연구자가 속한 집단을 연구대상으로 삼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참

여형태로 관찰하였다. 또한 다문화 지원센터의 언어치료 교사와 이루어지는 활동에 대해 참여관찰하였다.

초롱반 담임인 연구자는 자유선택활동이 진행되면서 계속적으로 관찰하고 유아와 다문화가정 유아의 상호작용도 관찰 하였다. 관찰한 내용은 현장노트에 기록하였다.

2) 동영상촬영

언어 활동을 진행하면서 다문화가정 유아가 또래 유아들 간의 놀이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통해 기록한. 또한 시간연장 교사의 도움을 받아 대그룹 또는 소그룹 활동시 동영상을 촬영하여 기록하였다.

3) 저널쓰기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전문성과 반성적 사고가 요구되므로 연구자는 저널 쓰기를 통해서 언어활동의 부족한 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고 해결책을 고안하여 보다 효과적인 언어활동을 계획하는 활용하기로 하였다.

5. 자료분석

연구기간 동안 수집된 관찰일지와 동영상 및 사진자료, 교사저널, 면담을 통해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 번째, 만 3세 초롱반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활동을 개선하고자 문헌 자료를 수집하였다. 다문화가정 유아가 만 3세 초롱반에서의 활동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는데 동료 교사와 함께 동영상을 전사하며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한 개선방안을 계획하였다.

두 번째, 연구문제인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활동을 진행하며 유아의 변화과정을 관찰하여 기록하고 사진자료를 만들어 1차시 활동에 대한 평가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2차시 활동을 계획하고 평가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다시 정리하며 만 3세 초롱반 다문화가정 유아를 위한 언어활동 개선과정에서 나타난 유아들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1. 만 3세 초롱반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 및 활동의 문제점

다문화가정의 유아들이 2012년 3월부터 어린이집에서 또래 유아들과 함께 놀이하고 활동하며 교사의 관찰을 통해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문화가정 유아를 위한 언어활동이 진행되기 전 다문화가정 유아들이 만 3세 초롱반 교실에서 나타난 언어 및 상호작용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적 상호작용의 어려움

초롱반의 다문화가정 유아들은 대·소그룹 활동시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다. 다문화가정 유아는 언어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상호작용의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러한 상호작용의 어려움은 또래 관계에도 영향을 주었다.

주원: 이거 내꺼야.

수민: 뭐라고? (수민이는 쌓기 영역에서 블록놀이를 한다.)

주원: 이거 내꺼야.(부정확한 발음으로 말한다.)

수민: 무슨 말하는거야.

주원: 이거 줘

수민: 이거? 이거 내가 먼저 했어

주원: 아니야

수민: 아니야. 이거 내가 만든거야.

주원: 내꺼야.

수민: 뭐라고? 무슨 말이야? 선생님 주원이가 무슨말 하는 거예요?

주원이가 쌓기 영역에서 놀이를 하다가 잠시 코를 풀러 다녀왔다. 그 사이 수

민이가 주원이가 놀이하던 놀잇감을 갖고 놀게 되었다. 주원과 교사가 이야기를 하면서 주원은 “내가 먼저 놀았는데.” 라는 말을 하는데도 교사는 3번을 다시 묻고 나서야 주원의 말을 알아 들을 수 있었다.

(2012.6.11. 주원, 오전 자유선택활동)

위 사례는 주원이가 영역활동을 하는 상황에서 관찰된 내용이다. 주원이가 짧게 간단한 단어에 대해 이야기를 해도 또래 유아나 친구들은 주원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였다. 주원이가 처음 입학했을 때는 친구들이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경우가 많았지만 입학을 한지 5개월이 지난 지금도 주원은 친구들과 놀이를 할 때 어눌한 말투로 말을 한다. 교사는 주원의 말을 2번 정도 다시 듣고 난 후에 이해할 수 있지만 또래 유아와는 여전히 주원의 말을 바로 알아듣지 못하였다. 주원과 또래유아가 다투는 상황에서 두 유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두 유아가 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서로 다르게 이해하여 다투게 되는 경우도 관찰되었다.

교사: 지연아 친구들과하고 놀이할까?

지연: 눈깜빡임

(지연이가 역할 영역으로 간다.)

민서: 선생님 지연이랑 성진이랑 싸워요.

성진: 지연이가 이거 놀았는데 갖고 갔어요.

유진: 네. 지연이가 갖고 갔어요.

성진과 유진이 역할영역에서 놀이를 하고 있을 때 옆에 있던 지연이는 성진과 유진이 놀이하던 인형을 갖고 갔다. 놀이하던 친구들은 지연이가 갖고 간 것을 알고 인형을 잡았지만 지연이는 인형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또 다시 빼앗는다.

(2012. 7.4. 지연, 자유선택활동)

지연이는 교사나 또래 유아가 먼저 다가가 말을 걸어도 눈을 깜빡거리기만 할 뿐 다른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다. 놀이 시 지연이가 원하는 놀잇감이 있을 경우 지연이는 친구가 놀이하던 장난감을 그냥 갖고 가거나 놀이를 하다가 장난감을 갖고 다른 영역에 가는 경우를 관찰할 수 있었다. 지연이가 기분이 좋을 경우 미소를 지어 보이거나 그렇지 않고 기분이 나쁠 경우 눈을 깜빡이며 눈물을 흘렸다.

처음 지연이가 어린이집에 입학했을 때에는 전혀 표현하지 않고 가만히 친구들의 활동을 지켜보는 행동이 많았는데 초롱반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짐에 따라 친구들과 간단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래 유아들이 놀이를 하며 재미있는 상황에 지연이는 미소를 지어 즐거움을 표현했다. 신체표현 활동이 진행될 때에는 소리를 내기도 하고 제자리에서 점프를 하면서 미소짓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의사표현을 전달할 만한 문장의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감탄사 등의 간단한 표현을 할 뿐이다.

형준: 이거 뭐지? 어 선생님. 이거 현석이가 갖고 갔어요.

교사: 뭐라고?

형준: 어.. 선생님 이거 예뻐요. 선생님 너무 예쁘네

교사: 그래? 고마워 형준아... 선생님 예쁘다고 해줘서.

형준: 네 선생님은 정말 정말 예쁘네요

(2012. 7.4. 형준, 자유선택활동)

형준이는 다른 다문화가정 유아에 비해 또래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없으나 또래와의 상호작용시 또래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보다는 형준이의 일방적인 이야기만 하여 의사소통을 잘 이루지 못하였다.

위의 사례에서 형준이는 교사와 짧은 상호작용에서도 현석이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교사가 예쁘다거나 하는 말로 대화에 집중하지 못하는 등의 태도를 보였다.

만 3세 초롱반 다문화가정 유아의 경우 세명 모두 어머니가 한국어를 전혀 할 수 없어 언어적 자극이나 반응을 기대하기는 힘들었다. 다문화가정 유아는 초롱반에서 이루어지는 교사와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2) 자유선택활동시간의 언어놀이 선택의 부재

만 3세 초롱반의 교육과정은 표준보육과정을 근거로 연간교육계획안, 월간 교육계획안을 바탕으로 활동이 이루어진다.

다음 주의 활동에 대해 학부모들은 전주 금요일에 계획안을 받고 필요한 준비물이나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문을 보고 준비를 하게 된다. 다문화가정 유아의 경우 학부모님과 다음 주 활동이나 행사가 있을 경우 직접 만나 자세한 설명을 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주 양육자에게 안내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사: 형준아 오늘은 무슨 활동부터 할까?

형준: 쌓기 영역이요.

교사: 쌓기영역? 그래 그럼 계획해서 활동 시작하세요.

형준: 난 쌓기 영역만 할꺼야.

형준이는 등원을 하자마자 가방을 정리정돈하고 바로 쌓기 영역으로 간다. 다른 영역의 자유선택활동 계획을 할 때에도 쌓기 영역이 우선으로 선택되며 다른 영역은 활동에 따라 바뀌지만 언어영역은 전혀 선택하지 않는다.

(2012.6.11. 형준, 오전 자유선택활동)

등원하여 형준이는 바로 쌓기 영역으로 간다. 쌓기 영역의 다양한 블록으로 만드는 것을 좋아하지만 쌓기 영역외의 다른 영역의 활동은 참여하려 하

지 않는다. 쌓기 영역에 다른 유아가 많은 경우에만 조작영역이나 미술영역의 영역에서 활동을 하지만 언어영역의 활동은 참여하는 경우가 적었다.

교사: 지연아 선생님하고 언어영역에 가서 같이 책 볼까?

지연: (눈 깜빡이며 교사 손을 잡는다.)

교사: (언어영역으로 가서 책을 읽어 준다. 교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뒤 지연이는 다른 영역으로 갔다.)

교사가 지연이와 언어영역으로 함께 가서 동화를 들려 주었다. 다른 유아가 등원을 하여 잠시 다른유아의 등원맞이를 하는 동안 지연이는 언어영역에서 나와 조작영역의 다른 유아가 활동하는 것을 지켜 본다. 지연이에게 친구와 함께 놀이해보자. 라고 이야기했지만 지연이는 교사의 손을 뿌리치며 가만히 서있기만 하여 또래 유아와 함께 하는 활동을 할 수 없었다.

(2012.6.12. 지연, 오전 자유선택활동)

지연이의 경우 자유선택활동에 참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교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자유선택활동에 대해 교사가 유도해 주고 함께 참여하여 놀이할 경우에만 활동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또래 유아의 놀이를 지켜보기만 하는 경우가 많다.

교사: 주원아 오늘은 무슨 활동할 거야?

주원: 오늘은 조작영역에서 물고기 잡을 꺼예요..

교사: 그래? 그 다음에는 언어영역에서 물고기 그림카드 놀이해볼까?

주원: 아니요. 물고기 잡고 역할 영역갈꺼예요.

오전 자유선택활동이 시작되면서 유아들의 자유선택활동 계획을 세울 때 교사가 주원이에게 활동 계획시 언어영역에서 놀이할 것을 유도해보았다.

주원이는 조작영역활동 후 역할 영역활동을 선택하였다.

(2012.7.4. 주원, 자유선택활동)

주원이의 경우 다양한 활동 중 언어영역에 대한 활동의 선택이 다른 다문화가정 유아보다 활동의 횟수가 많지만 언어영역의 활동이 우선이 아닌 다른 영역의 활동 후 남은 시간을 언어영역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문화가정 유아는 놀이시 쌓기 영역이나 역할, 미술 영역 등 놀잇감이 있는 다양한 영역에는 관심을 보였으나 자유선택활동시 선택하게 되는 활동 계획에는 언어영역의 선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쌓기 영역으로 다양한 구성놀이와 미술영역에서의 그림그리기 활동 등이 이루어질 뿐 책을 보거나 손 인형으로 친구들과 상호작용하며 놀이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 더불어 글자에 흥미를 갖고 언어영역 놀잇감에 관심을 갖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

2. 만 3세 초롱반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활동 지원을 위한 1차 실행

1차 언어활동 개선에서는 다문화가정 유아에게서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언어활동을 다음과 같이 계획하여 실행하였다. 첫째, 언어영역을 재배치하였다.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활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언어영역을 재배치 하여 다문화가정 유아가 언어영역에 관심을 갖고 영역활동에 참여하려는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언어영역의 교구 등을 새롭게 구성하고 다양한 교구의 제작함과 동시에 전과 다르게 언어영역의 안락함을 위한 비품을 준비하였다. 쿠션과 커튼을 준비하여 유아가 언어영역에 보다 편히 쉴 수 있게 준비할 수 있었다. 또한 유아들이 하루동안 언어영역에서 활동을 했는지의 여부와 활동내용을 교사가 쉽게 관찰 가능하도록 관찰기록지를 영역 한쪽에 비치해두었다.

둘째, 가정연계활동을 계획하여 유아에게 친숙한 주제로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활동의 참여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만 3세 초롱반에서는 다문화가정 유아의 상호작용 및 교사와의 의사소통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가

정연계를 통한 언어활동을 두 가지로 계획하였다. 첫째, 가정연계활동으로 진행되는 주말지낸 이야기 활동과 둘째, 가정과 연계하여 나의 이야기인 ‘너는 특별하단다.’의 활동을 계획하였다.

셋째, 또래와의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다양한 언어활동과 자료를 제시하였다. 언어활동의 흥미를 갖고 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언어영역에 적합한 놀잇감 등 주제에 맞는 도서와 녹음기, 손인형 등을 비치하여 또래와 함께 다양한 언어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활동이 이루어지는 동안 교사는 관찰과 참여를 반복하여 또래 유아들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였다. 계획된 실행활동중심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가정연계를 통한 대그룹 언어활동

초롱반 언어활동은 크게 대·소그룹으로 나누어 활동을 계획하여 진행하였다.

(1) 주말지낸 이야기

다문화가정 유아가 또래 유아와의 상호작용 및 교사와의 의사소통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주말지낸 이야기’의 활동을 확대 시행하였다. 평소 유아들의 주말지낸 이야기의 경우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오전 이야기 나누기 활동을 시작하면서 발표형식의 이야기 나누기활동이 진행되었었는데 ‘주말지낸 이야기’ 활동 수첩을 전 주 금요일 가정으로 보내어 부모님이 사진과 글을 적어 보내주시거나 유아가 직접 주말에 지낸이야기를 그림일기 형식으로 표현해볼 수 있도록 하였다. 다문화가정 유아의 경우 주 양육자 또는 한국인 양육자의 도움을 받아 주말에 ‘주말지낸 이야기’를 완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였다. 다문화가정 유아의 경우 준비가 어려울 경우 사진만 보내오거나 A어린이집의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학부모님이 보내

주시기도 하셨다. 처음 활동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어린이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주말 이야기 자료를 준비하는 학부모들이 있었다.

아이들: 주원아 주말에 뭐했어?
주원: 응, 나 엄마랑, 아빠랑, 놀러갔어. 가서 자전거 탔어
효주: 자전거 탔어? 재미있었어?
주원: 응. ...
교사: 자전거는 무슨 색이야?
주원: 빨강색이요, 바퀴가 동그래요.
교사: 그렇구나 자전거는 무슨 색이야?
주원: 빨강색
승규: 너 혼자타?
주원: 응 아빠가 잡아주고 엄마가 잡아주고
교사: 그렇구나 다음에 친구들에게 보여주면 좋겠다.
주원: 안돼요. 엄마가 갖고 가지 말랬어요.
교사: 다음에 엄마에게 다시 물어 보자.
주원: 네. 여기 사진있어요.

(2012.10.8. 주원, 주말지낸 이야기)

주말지낸 일을 사진자료를 준비하여 또래유아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발표하였다. 주말이야기를 하며 주원이는 또래유아의 말에 반응하며 또래유아와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이들: 지연아 주말에 뭐했어?

지연: (대답없이 자리에 앉아 있다.)

교사: 지연아 주말에 뭐하고 지냈니? 친구들에게 이야기해줄래?

지연: (대답없이 눈만 깜빡인다.)

교사: 지연이는 엄마랑 아빠랑 동생이랑 놀이터에 갔을까? 밥도 맛있게 먹고..

지연: (고개를 끄덕인다)

승규: 무슨 밥 먹었어?

지연: (대답없이 눈만 깜빡인다.)

지연이의 주말지낸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다. 다른 친구들의 주말이야기를 듣기위해 지연이를 위해 계속 기다릴 수 없었다. 다만 지연이가 교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행동이 나타났다. 교사의 말에 반응하는 모습은 지연이가 친구들과앞에서는 처음일어났다.

(2012.10.8. 지연, 주말지낸 이야기)

위 사례와 같이 아이들은 주말지낸 이야기에 서로 관심을 보이며 친구들의 주말지낸 이야기에 관심도와 흥미를 보였다. 지연이는 또래 친구들과 상호작용에 소극적이어서 친구들이 지연이의 이야기를 기다려 주거나 관심을 갖지 못하였다. 주말지내이야기를 통해서 지연이에게 교사가 대화를 유도하게 되어 고개를 끄덕이는 행동이 나타났고 활동 전 지연이는 부정적인 의미를 표현할 때 눈을 길게 깜빡이는 행동을 하였다. 과거 지연이는 친구들이 말을 걸게되면 ‘아니’ 라는 뜻으로 눈을 길게 깜빡 거렸다.

학기 초부터 지연에 대한 걱정이 너무나 컸다. 지연이는 말을 하지 않고 교사의 말에 반응을 하지 않았다. 눈을 마주 치게 되면 가만히 바라본 보고 교실에서는 친구들이 놀이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만 보았다. 이런 지연이가 안쓰러워 놀이에 참여 시켜 주려해도 지연이는 가만히 지켜 볼 뿐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언어활동에 대한 지원을 계획하면서 지연이에 대해 어떻게 해주어야 할지 너무나 걱정이 되었다. 유아행동수정 교사 연수의 기회가 있어 지연이와 같은 유아의 경

우 교사가 대화를 유도해 주고 지연이가 말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필요가 있음을 알았다.

주말지낸 이야기를 통해서 지연이에게 발표 기회를 주었다. 지연이는 가만히 있었지만 지연이가 말을 하게 하기 보다는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질문을 하였다. 그랬더니 지연이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아니라는 표현을 하였다. 놀이를 할 때 보이는 행동이기는 했지만 친구들앞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주말지낸 이야기 활동이 끝나고 지연이를 안아주고 칭찬해 주었다.

(2012.10. 8. 연구자 저널 중에서)

다문화가정 유아는 가정에서 학부모와 함께 준비한 자료를 다양하게 준비하는 모습이였다. 사진자료를 프린트해서 발표하는 경우도 있었고 컴퓨터 작업을 통하여 사진에 주말지낸 이야기의 내용을 간단하게 적어오는 다문화가정 유아도 있었다. 다문화가정 유아가 준비한 주말지낸이야기 자료를 또래유아들은 서로 돌아가며 사진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이들: 형준아 주말에 뭐했니?

형준: 그냥 집에 있었어.

교사: 집에서 뭐하고 놀았는지 이야기해 줄래?

형준: 밥 먹고 냉장고를 열어서 잼을 먹었어 그런데 할머니가 안된다고 그래서 아이구

아이들: (아이들이 웃는다.)

형준: (머리를 감싸며) 내가 못살아. 에이구...

교사: 형준아 바르게 앉아서 이야기하자.

형준: 네.

교사: 그리고 또 뭘 했니?

형준: 놀이터에 가서 주호를 만났어요.

교사: 그랬구나 주호랑 같이 놀았어

형준: 그런데 주호랑 놀다가 주호가 집에 갔어요.

교사: 더 놀고 싶었겠구나

형준: 할머니가 엄마한테 가자고 해서 엄마한테 가서 에휴. 힘들다. 힘들어요.

교사: 그래 잘해주었어.

형준이는 친구들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지내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처럼 이야기하는 습관이 있다. 이러한 모습을 친구들이 좋아해주고 즐거워해주어 형준이는 친구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 코믹한 행동을 취해 아이들을 웃게 만든다. 주말지낸 이야기 활동을 하며 주말에 지낸이야기 활동을 하다 갑자기 ‘에구구’라는 말을 하며 머리를 동그랄게 빙글빙글 돌려 친구들을 웃게 해주었지만 형준이는 주말지낸 이야기 활동에서 벗어난 행동을 한다.

(2012.10.15. 형준, 주말지낸 이야기)

형준이는 언어적인 표현이 자유로워 또래 유아와 상호작용을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 대화를 할때 있어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로 상호작용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다. 다음 사례를 보면 형준이가 주말지낸이야기를 하다가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형준이는 또래 유아들로부터 관심을 얻고 싶어 한다. 때로 과장된 행동을 하거나 소리를 내어 또래 유아들의 관심을 받는 경우가 많다. 위의 사례에서도 주말지낸이야기를 하다가 형준이의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말투를 흉내 내거나 재미있는 표정을 지어 교사가 다시 주말지낸이야기에 대해 질문을 하여 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사진 1> 주말지낸 이야기를 하고 유아들

대집단활동을 할 때 형준이는 활동에서 벗어난 질문이나 활동에 집중하지 못하는 행동을 보인다. 몸을 일으켜 점프를 하여 친구들이 활동에 집중하지 못하고 형준이의 행동을 보면서 웃거나 장난을 친다. 이런 행동이 자주 보이고 그럴 때면 주의를 주어 형준이를 활동에 참여 시키려고 한다. 하지만 활동에 참여하는 정도가 짧고 친구들 또한 형준이에게 영향을 받아 활동에 집중하지 못해 많은 고민을 하게 한다. 형준이가 이럴 때면 항상 형준이에게 주의 집중을 하는 것에 주의를 주지만 어떠한 활동을 하든 문제행동이 나타난다. 이런 형준이에게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다.

오늘처럼 형준이가 주말지낸 이야기에 다른 이야기로 가거나 주말이 아닌 몇일전 이야기나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경우 교사가 다시 질문을 하게 된다. 그럴 때면 형준이에게 더 도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고민을 하게 된다.

(2012.10.15. 연구자의 저널)

주말 지낸이야기를 가정과 연계하며 한국어가 가능한 학부모와 언어전달을 통해 활동에 대해 이해를 돕고 준비해 줌으로써 유아가 발표 자료를 준비해 응원하는 날에는 자신감을 갖고 교실에 들어오는 모습도 관찰할 수 있었다. 주말 지낸이야기를 통해 다문화가정 유아들은 서로에게 관심을 갖으며 발표에 집중할 수 있었고 초롱반 친구들에 대한 관심을 갖는 모습이었다.

초롱반 유아들은 발표를 통해 자신감을 갖고 친구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즐기며 서로 발표해 보려고 손을 드는 모습을 보였다. 다문화가정 유아들도 또래 유아들의 발표하는 모습에 관심을 보이며 이야기를 들으며 또래 유아가 하는 말에 주의를 집중하며 듣는 모습이었다.

(2) 나의 이야기 ‘너는 특별하단다.’

‘나의 이야기’는 유아들이 나의 일생에 대한 이야기를 또래 유아들앞에서 발표하는 활동이다. ‘나의 이야기’는 유아가 1살부터 지금까지 유아의

아기사진부터 지금의 모습사진을 어린이집에 갖고 와 하루에 한 명씩 발표하는 발표형식의 이야기활동이다. 초롱반 유아들과 다문화가정 유아 모두 하루에 한 명씩 발표하는 활동으로 4주간의 활동으로 진행되었다.

가정연계활동으로 학부모가 보내준 사진으로 유아가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며 발표하였다.

형준: 이건 내가 엄마 배속에 있을 때 . 그리고 이건 나 1살 때

교사: 이 사진은 엄마 배속에 아기사진이구나. 아기 모습이 보이니?

아이들: 머리랑, 손이다.

형준: 엄마 배속 이건 나 1살 생일 때.

교사: 이 사진은 몇 살때야?

형준: 이건 3살 때 여기 엄마랑 아빠랑

효주: 어 근데 이건 뭐야?

형준: 이건 중국 엄마가 중국사람이야.

교사: 그래 형준이 엄마는 중국사람이셔.

승준: 아..

형준: 응,, 여긴 아파트 앞에서 ... 여긴 꽃이 있어요. 선생님 다음에 꽃 줄게요.

교사: 그래~ 고마워요. 또 다른 사진도 보여 줄래?

형준: 아고 목아파라. 예휴 그리고 이건 4살 그리고 이건 5살

(중략)

교사: 형준이 정말 멋지게 잘해주었어요.

나의 이야기 활동을 하면서 사진에 엄마와 중국에 간 사진이 있었다. 형준이는 이 사진을 보면서 친구들에게 엄마는 중국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나의 이야기를 하며 형준이의 가족에 대해 친구들에게 다문화가정에 대해 이야기하여 또래 유아들이 자연스럽게 형준이가 다문화가정 임을 알려 줄 수 있었다.

(2012.10.17. 형준이의 나의 이야기 발표중에서)

형준이는 초롱반의 다문화가정 유아인 지연이와 주원이와는 달리 의사소통이 자유롭고 또래 유아와의 상호작용의 어려움이 없어 이야기를 하는데 적극적이며 활발하게 자기 표현을 하는 모습이었다. 형준이의 ‘나의 이야기’ 발표에서는 대그룹 활동 시 친구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에 자신감을 갖고 사진 하나 하나를 또래 유아에게 소개하는 모습이었다. 발표가 끝난 후에도 자유선택활동시에 사진자료를 친구들에게 보여 주며 다시 설명해주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발표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다문화가정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 졌다. 또래유아들은 이런 형준이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형준이의 이야기책을 언어영역에 두어 또래 유아들이 자유선택활동시간에 형준이의 나의 이야기 책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교사: 오늘은 지연이가 준비한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이예요.

지연이가 나와서 친구들에게 들려줄까?

이건 지연인가봐 지연이가 이야기해 줄래?

지연: 나 ..

교사: 지연이 몇 살때야?

지연: 한 살

교사: 그렇구나. 여기는 누구야?

지연: 지연이 엄마, 아빠, 지연이 할아버지, 할머니

민서: 또 이걸 뭐야?

수민: 뭐라구?

(중략)

교사: 지연이가 너무 잘 해주었어요. 지연아 고마워.

지연이가 친구들 앞에서 이야기하며 나의 이야기활동을 해주었다. 간단한 어휘로 설명해 주었는데 지연이는 엄마, 아빠, 나 간단하게 대답하며 나의 이야기를 마무리 하였다. 친구들이 질문을 하고 지연이의 작은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친구들이 다시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2012.10.10. 지연이의 나의 이야기 중에서)

지연이의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지연이가 천천히 이야기하고 작은 소리로 이야기를 하면서 또래 유아들이 잘 들리지 않아 또 질문하거나 그냥 듣고 있는 아이들도 있었다.

지연이어머니가 준비한 사진으로 발표하였는데 가정에서의 프린터 사용이 어려워 교사가 사진현상을 하여 발표자료를 만들어 주었다. 지연이아버지는 지적장애가 있어서 사진을 찍거나 내용을 적는 것은 주로 어머니와 교사가 함께 하였다. 지연이의 어머니가 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연구자인 교사가 프린트하고 사진에 대한 설명을 어머니로부터 받아 자료에 글자를 적어주었다. 지연이가 발표한 자료는 언어영역의 벽면에 구성하여 또래 유아들이 언어활동을 하면서 ‘나의 이야기’ 활동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사진 2> ‘나의 이야기’를 발표하고 있는 유아

2) 또래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소그룹 언어활동

언어활동은 생화주제에 기초하여 언어활동의 주제를 정한후 소그룹활동으로 진행하였다. 생활주제는 ‘가을’로 이에 관련된 언어활동으로는 쌀그림 그리기, 친구와 인형으로 이야기하기, 인형가면놀이, 글자카드 활동으로 소그룹 언어활동은 상호작용이 많이 일어나는 자유선택활동시간을 위해 계획하여 실행하였다.

쌀그림교구의 새로운 활동자료에 관심을 가장 많이 보인 건 형준이었다. 형준이는 다양한 그림카드의 글자를 보면서 글씨를 써보려고 노력하였다. 형준이가 언어영역에서 오랜 시간활동하며 준비된 카드를 모두 손가락으로 적어 보았다. 형준이의 이런 모습에 관찰자인 교사도 형준이를 칭찬하며 활동의 적극적인 형준이의 환롱을 격려하였다. 형준이는 손가락으로 쌀그림위에 글자를 적어 보면서 지금 쓰고 있는 글자가 무언지 교사에게 질문하는 모습도 보였다.

형준: 아~이거봐 이거뭐지?

교사: 이건 쌀이지. 선생님이 알려줄게. 여기에 카드를 놓고 그 위에 손으로 이렇게

따라 쓰는거야.

형준: 정말 멋지다. 선생님 최고예요.

교사: 그래 고마워 형준이도 한번 해볼래?

형준: 네.

(형준이가 책상에 앉아 쌀그림을 그린다.)

형준: 선생님 이거 뭐라고 쓰는 거예요.

교사: 사과 , 가을에 먹는 맛있는 사과

형준: 아~ 그렇구나. 재미있어요.

형준이는 때로 책에 나오는 정자처럼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 우와~ 정말 대단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선생님은 정말 멋져요.. 최고~ 등 간혹 우수워 보일 수 있는 말들을 한다. 형준이는 주의집중이 짧기 때문에 이 활동에도 활동이 오래 지속되지 않을 꺼라는 예상을 하였다. 하지만 사과와 다른 준비된 카드를 한번씩 활동해 보며 활동을 마무리하였다. 카드를 빠르게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리다가 쌀을 쏟아버려 교사가 사전에 안내한 듯 빗자루를 갖고 와서 정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2012.10.24. 형준이의 쌀그림 언어활동)

형준이는 쌀그림활동에 관심을 보이며 자유선택활동시간 쌀그림활동 자료와 글자 카드 활동을 오래 지속하였다.



<사진 3> 쌀그림 활동을 하고 있는 유아들

쌀그림활동을 진행한 후 다른 활동의 자료를 제시하였다. 다음활동으로는 또래유아의 얼굴이 있는 인형자료를 제시하였다. 인형으로 이야기하는 활동은 인형에 초롱반 유아들의 사진을 준비하여 인형 안에 사진을 붙여 서로의 손인형을 조작하여 이야기를 하는 활동이다. 아이들은 교구에 자신의 사진이 있음에 흥미를 갖고 서로 손인형에 자기 모습이 있는 사진을 붙여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모습에 서로 웃으며 또래와의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효주: 지연아 이거해보자.

지연: (손 인형을 만진다.)

효주: 여기 나있다. 너도 있어

(효주가 손 인형에 효주사진과 지연이 사진을 붙여준다.

효주: 하.. 웃긴다.

지연: 하. 웃기네

효주: 안녕.

지연: 안녕.

효주: 너 이름은 뭐니?

지연: 지연 이구...야... 야야야..
효주: 우리 저기가서 놀래? 이거 말고
지연: 그래

언어영역에 있던 지연이에게 효주가 다가왔다. 인형에 사진을 붙이는 활동에 지연이에게 먼저 하자고 제안한다. 효주는 지연이에게 너 이름이 뭐니? 라고 이야기하며 손인형을 조작한다. 지연이는 효주의 말을 따라 하며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다른 활동을 함께 하기로 한다.

(2012.10.18. 자유선택활동)

지연이도 효주가 먼저 다가와 함께 놀이하자고 하였다. 지연이는 효주의 말을 따라하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연이와 효주가 활동을 하다 지연이의 말이 더 나오지 않자 효주는 지연이와 다른 놀이를 하자고 하였다. 지연이도 이런 효주를 따라 다른 영역에 가서 놀이하는 모습을 보였다. 효주는 지연이를 다른 영역으로 데리고 가서 놀이를 하고 다음 영역에서도 지연이와 함께 놀이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연이는 효주를 따라 다니며 함께 놀이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 친구의 얼굴사진이 붙여 있는 손인형을 조작하며 다문화가정 유아들은 또래유아와 자연스럽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었다.

손인형과 더불어 유아들에게 친숙한 동물가면교구를 제시해 주었다. 다양한 동물의 가면을 제시하며 동물의 소리나 움직임 표현해 보는 언어활동이 진행되었다. 다문화가정 유아들은 가면을 직접 써보며 교사가 알려주지 않아도 스스로 동물의 소리를 내어 또래 유아와 동물소리를 내며 함께 활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원: 동우야 여기 오리인형
동우: 응 고마워
주원: 난 강아지 멍멍, 멍멍,
동우: 하지마 난 오리야.
주원: 난 강아지인데
동우: 넌 강아지야?
주원: 응
동우: 난 오리 껍 껍 난 오리 할 거야.
주원: 넌 오리 할 거야?
동우: 응 난 오리 좋아해.

동우는 인형 중에 오리인형을 가장 좋아한다. 주원이가 오리를 좋아하는 동우에게 먼저 오리인형을 건네주었다. 오리인형을 쓴 동우와 가면을 쓰고 동물 흉내를 낸다.

동우도 오리의 울음소리를 흉내내면서 놀이를 계속하였다.

(2012.10.25. 자유선택활동)

주원이는 놀이를 하며 동우에게 먼저 다가갔다. 주원이가 동우에게 동우가 제일 좋아하는 오리인형을 건네주었다. 이런 동우도 주원이가 주는 인형을 받으며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였다. 주원리와 동우는 인형가면을 쓰고 놀이를 하며 언어영역의 활동이 진행되었다. 먼저 다가간 주원리와 동우가 다른 영역에서도 함께 놀이하러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언어활동이 진행되며 다문화가정 유아들은 언어에 관심을 보였고 언어영역을 선택하여 활동하는 모습이였다.



<사진 4> 인형가면놀이를 하고 있는 유아들

언어영역의 관심으로 동물가면 언어활동을 마무리하며 글자카드로 활동하는 언어활동 자료를 제시하였다. 글자카드는 3단계의 자료로 제시하였다. 그림카드와 글자카드, 그림과 글자가 함께 있는 카드로 활동자료를 준비해주었다. 3단 카드는 글자와 그림이 같이 있는 카드와 글자와 그림이 분리된 카드로 수준별 활동이 가능한 언어활동자료이다.

효주: 이건 사자, 호랑이,

교사: 효주가 사자와 호랑이 글자 다 읽을 수 있구나.

효주: 엄마가 알려줬어요.

형준: 이거는 뭐야?

효주: 이건 음.. 토끼

형준: 이거는?

효주: 돼지.

형준: 우와 효주 정말 대단하다. 멋지다.

효주: 이거는 사자야. 사자.

형준: 사자

효주: 이거는 토끼야.

형준: 토끼

글자카드에 있는 글자를 언어영역의 책상에 펼치며 읽는 모습이었다. 효주가 엄마가 알려준 글자를 따라 읽으며 형준이에게 이야기한다. 형준이는 효주가 읽은 글자를 따라 말한다.

(2010.11. 5. 자유선택활동)

형준이는 글을 읽기에 어려움이 있어 그림카드와 글자카드를 함께 보며 읽는다. 효주가 글자카드만 보며 읽는 모습을 보고 효주를 따라 읽는다. 이런 형준이에게 효주는 글자를 하나씩 읽어 주며 형준이가 따라 읽도록 하였다. 형준이와 효주가 언어영역에서 활동을 하며 다른 유아들도 언어영역의 글자카드에 관심을 보였다. 효주에게 배운 글자카드를 형준이는 또 다른 유아들에게 읽어 주는 모습이였다.



<사진 5> 글자카드 놀이를 하고 있는 유아들

3) 만 3세 초통반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활동 개선을 위한 1차 실행평가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활동에 흥미와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가정연계를 통한 대그룹 언어활동과 또래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소그룹 언어활동이 진행되었다. 1차 언어활동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계획된 대부분의 언어활동은 일반가정 유아의 수준에 맞추어진 활동으로 다문화가정 유아가 참여하기에 어려움을 나타냈다. 다문화가정의 유아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교사가 잘 이해하지 못해 여러 번 다시 물어보거나 대집단 활동의 발표활동시간동안 교사가 다문화가정 유아의 표현을 다시 또래 유아들에게 전달해 주는 과정이 필요했다. 교사의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 다문화가정 유아에 대한 개별활동 지원의 필요성을 느꼈다.

교사가 활동을 진행하면서 언어활동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계획하던 중 지역다문화센터에서 관내 어린이집에 채용 중인 다문화가정 유아를 대상으로 언어지도 제공한다는 공문을 받았다. 다문화 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다문화가정 유아의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언어지도와 미술지도, 놀이지도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공문을 통해 초롱반의 다른 다문화가정 유아가 언어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학부모와의 상담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이루어졌다. 언어지도사가 어린이집으로 방문하여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언어지도사와 사전 면담을 통해 다문화가정 유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다문화가정 유아들에게 가장 시급한 일상생활에 대한 어휘 지도와 함께 다양한 언어활동에 대한 개별지도를 계획할 수 있었다.

둘째, 다문화가정 유아들은 대·소집단 활동을 통해서 언어활동이 진행될수록 관심과 흥미가 높아졌다. 가정연계활동으로 이루어진 주말지낸 이야기는 다문화가정 유아에게 친숙한 주제로 활동이 진행되면서 다문화가정 유아가 자신감을 갖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더불어 학부모의 어린이집 활동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주말지낸 이야기를 하지 못하거나 결석으로 수첩을 받지 못하게 되면 개별적으로 주말이야기를 준비하는 열의도 보였다. 아이들은 등원을 하면서 너는 주말에 뭐했어? 등의 질문을 하거나 주말동안 있었던 일을 또래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친숙한 주제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여 관심과 호기심은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다문화가정 유아들은 준비와 발표에 어려움을 갖는 모습이었다. 발표자료를 글로만 적어 보내주시거나 사진만 보내주시어 유아가 발표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발표를 할 때에 다문화가정 유아들은 소극적이거나 발표를 하는 시간이 짧아 활동이 금방 끝나버리기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유아가 만3세 초롱반에서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의 수정보완이 필요하였다. 다문화가정 유아가 초롱반에서 이루어지는 대·소그룹의 언어활동에 관심과 호기심은 높아졌지만 참여에 있어 소극적인 자세로 수줍음을 보이거나 관심은 있으나 발표를 회피하려는 태도가 나타났다. 이러한 1차활동을 바탕으로 다문화가정 유아가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의 모색이 시작되었다.

셋째, 소그룹언어활동이 진행되면서 또래간의 대화가 다양하게 이루어짐을 볼 수 있었다. 또래 유아가 먼저 다문화가정 유아에게 다가가 놀이를 제안하는 모습에 다문화가정 유아는 또래 유아와 함께 활동하며 상호작용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반면에 다문화가정 유아가 먼저 다가가서 또래 유아와 함께 하는 활동은 관찰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언어활동을 계획하면서 또래간의 대화를 유도하고 또래와 상호작용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함을 느꼈다.

넷째, 다문화가정 유아들은 자유선택활동선택시 언어영역의 선택하여 활동을 하는 횟수가 늘어났다. 형준이의 경우 글자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교사에게 글자카드에 있는 글을 읽어 주기를 바라였다. 언어활동에 대한 다문화가정 유아 관심과 흥미는 높아졌지만 반면, 다른 영역에서의 활동은 관심과 호기심이 적게 나타났다. 언어영역에 대한 관심이 높은 반면 수 조작, 과학, 미술 영역에서의 활동이 저조했으며 다양한 활동을 제시해 주어도 유아들의 관심과 호응이 낮았다. 이러한 아이들의 관심을 다른 영역에도 골고루 나누기 위해 고민하게 되었다. 언어활동으로 다양한 통합적 활동을 모색하던중 강보라(2012)의 연구에서 사용된 그림책을 통한 통합활동을 기초해서 계획해 보기로 하였다. 그림책을 선정하여 음악적, 미술, 신체 표현 등의 다양한 활동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며 2차 언어활동을 계획할 수 있었다.

3. 만 3세 초롱반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활동 지원을 위한 2차 실행

1차 언어활동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완하여 2차 언어활동을 계획할 수 있었다. 1차 언어활동의 개선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2차 언어활동을 다음과 같이 계획하였다. 첫째, 그림책을 활용한 통합활동을 계획하였다. 둘째,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다문화가정 유아의 개별언어 활동을 계획하였다. 2차 언어활동개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그림책을 활용한 통합활동

1차 활동의 평가를 통해 2차 언어활동에서는 그림책을 통한 통합활동을 계획하였다. 통합활동은 강보라(2012)의 연구에서 사용된 그림책 통합활동의 내용에 기초해서 초롱반 유아에게 적합한 내용의 그림책을 선정하여 적용하였다. 선정된 그림책으로는 ‘너는 누구니?’, ‘내 친구 깡충이’, ‘야! 비온다’, ‘꼬마 비버와 메아리’의 그림책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그림책은 친구와 협동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다문화가정 유아와 또래 유아와의 긍정적 관계와 상호작용의 효과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그림책활동의 진행은 교실의 모임 형태부터 바꾸었다. 기존에는 교사가 의자에 앉고 유아들이 준비된 매트위에 앉아 교사와 시선을 마주치고 교사는 모든 유아들이 바라보는 자리에 위치하였다. 이러한 모임을 교사와 모든 유아들이 동그랗게 앉아 서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책을 읽어 줄 때와 활동이 진행 될 때 유아들은 모두 동그랗게 자리를 만들어 활동을 시작하였고 그림책의 내용을 노래로 표현해 불러 보고 스카프와 악기 등 유아의 흥미를 고려한 자료를 제시하며 활동을 진행하였다. 그림책에서 다양한 흥미영역의 활동은 선정된 그림책에 관련된 내용의 영역활동이 진행

되었다.

교사: 동글 동글 동글 멋진 케이크 손을 잡고 모두 동글동글동글
예쁜 동그리 만들어 보았나요?
(교사가 노래를 부르면 유아들이 동그랗게 모여 앉는다.)

(2012.11.19. 대집단 활동)

모둠 활동을 시작할 때 위의 사례와 같이 교사가 노래를 부르면 유아들은 다른 곳에 있다가도 노래 소리에 모두 모여 손을 잡고 동그랗게 준비한다. 그림책 활동을 진행하면서부터 시작된 신호와도 같은 손유희가 되었다.

교사: 동화 동화 동화 재미있는 동화 나와라 ~
(동화내용을 노래로 불러 들려준다.)

너는 누구니? 나는 애벌레 하지만 어른이 되면 나비가 된단다.
너는 누구니? 나는 올챙이 하지만 어른이 되면 개구리가 된단다.
너는 누구니? 나는 아기 동물 하지만 어른이 되면 캥거루가 된단다.

<중략>

교사: 선생님처럼 그림책을 노래로 불러 볼까? 너는 누구니? 라고 너희들이 불러줄래?

아이들: 너는 누구니?

교사: 나는 애벌레 하지만 어른이 되면 나비가 된단다.

<중략>

(2012.11.19. 대집단활동)

동화를 들려주며 노래로 부르는 동화를 듣고 유아들이 동화가 끝났음에도 동화책을 바라보고 있었다. 너는 누구니? 라는 부분을 유아들이 불러 주고 나머지 애벌레가 나비가 된단다. 부분은 교사가 불러 주었다. 유아들의 관심

이 많아지며 동화를 3번 이상 반복하여 들려 주었다. 활동 후에 언어영역에서 유아들이 자유롭게 그림책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동화의 내용을 큰 칠판에 배경을 준비해 주어 유아들이 막대인형을 놓아 자유롭게 유아들이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아들은 물론 다문화가정 유아들도 그림책에 관심을 갖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형준: 너는 누구니?

주호: 나는 애벌레

형준: 하지만 어른이되면

주호: 아니 이건 내가 하는 거야

형준: 그래? 너는 누구니?

주호: 나는 애벌레 하지만 어른이 되면

형준: 나비가 된단다.

주호: 야 내가 해야지. 너는 그것도 몰라.

형준: 아 알았어. 너가해

주호: 너는 누구니?

형준: 나는 애벌레. 하지만 어른이 되면

주호: 나비가 된단다.

(서로 마주 보며 웃는다.)

(2012.11.20. 형준, 자유선택활동)

위 사례와 같이 형준이가 그림책을 들고 쉬는 영역에 가서 자리에 앉아 노래를 부르며 그림책을 보고 있었다. 주호가 함께하기를 원하여 함께 그림책을 보고 있는 장면이다. 형준이는 자기가 할 부분을 잘 모르고 주호는 그런 형준이에게 형준이가 해야 하는 부분을 알려주었다. 형준이는 ‘아 그렇구나’ 라고 이야기하며 자기가 할 부분의 노래를 불렀다. 서로 노래를 부르다 마지막에 주호는 형준이의 부분을 노래 부르며 서로 마주 보며 웃는 모습이다. 이처럼 처음 그림책을 보여 준 후부터 언어영역에서 그림책을 서로 보고 또 다 보면 다른 친구들이 보며 노래를 불렀다. 어린이집의 운영시간 관계로 유아들이 오전 자유선택활동과 오후 자유선택활동시간에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유아들은 충분한 시간동안 나누어 그림책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활동이 이루어 지면서 학부모들의 문의가 많았다. 아이가 그림책이야기를 하는데 제목이 무엇인지,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인지 문의하는 학부모들이 많아 그림책의 노래와 내용을 안내문을 통해 따로 안내 할 수 있었다.

‘너는 누구니?’ 그림책을 통한 통합활동으로는 표현활동으로 스카프 활동이 진행되었다. 스카프 활동으로는 노래를 부르는 유아가 스카프를 머리에 쓰고 또 다른 유아가 ‘너는 누구니?’ 부르는 모습을 관찰하였다. 스카프를 쓰고 있는 유아가 ‘너는 김주원’ 이라고 노래를 부르며 반복된 활동을 진행하며 다문화가정 유아와 또래 유아와의 활동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래 유아들과 스카프 활동을 진행하면서 소그룹활동으로 이러한 놀이를 소개해 줄 수 있었다. 놀이가 진행되면서 다문화 가정 유아들은 손을 마주 잡으며 동화를 보지 않아도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다문화가정 유아들이 그림책에 관심을 보이며 그림책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림책의 내용을 책을 보지 않고도 순서대로 노래를 부르며 활동하는 모습이었다. 다음 사진은 너는 누구니 그림책의 스카프 표현활동의 사진이다.



<사진 6> 그림책을 활용한 통합 활동으로 스카프 활동을 하고 있는 유아들

그림책의 내용을 오전 인사를 나누는 시간에 활용하기로 하였다. 인사 나누기 시간 동그랗게 모여 앉아 인사 노래를 부르며 하루 일과를 시작하였다.

교사: 선생님과 인사해 볼까요? 오늘부터 새롭게 인사해 보자.

너는 누구니? 나는 이형준 , 나는 정채원, 나는 신주호.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형준: 나는 이형준.

주호: 나는 신주호

<중략>

(2012.11.22. 형준, 대집단활동)

위 사례와 같이 초롱반은 ‘너는 누구니?’ 활동을 진행하며 대집단활동이 시작되기 전 인사노래를 바꾸어 인사노래를 불러 보기로 하였다. 이처럼 그림책내용의 노래로 초롱반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에 접목하는 것은 그림책에 대한 흥미를 높여주기 위함이다.

음률 영역에서는 ‘너는 누구니?’ 의 악보 책을 제시해 주었다. 음계를 색깔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어 다문화가정 유아가 그림의 색을 보며 핸드벨을 연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문화가정 유아들은 또래와 함께 음률영역에서 노래를 부르며 악기 연주를 하였다. 음이 다르더라도 악보 책을 보며 스스로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음이 맞지 않으며 다문화가정 유아 스스로 책을 보며 다시 바꾸어 부르는 모습을 보였다. 빠르기가 늦거나 빠를 경우에도 유아는 음에 맞추어 노랫말을 천천히 혹은 빠르게 부르기도 하였다. 초롱반 유아들은 그림책을 통한 악기 연주에 관심을 갖고 연주에 흥미를 보였다.

주원: 너는 누구니?
 민서: 이거 아니야.
 주원: 마저
 민서: 아니야. 이렇게야 너는 누구니 나는 김민서.. 하지만 어른이 되면 발레리나가 될 거야.
 주원: 너는 누구니? 야.
 민서: 아니야. 선생님, 주원이가 자꾸 너는 누구니 인데 너는 누구니래요.
 주원: 아난데.
 교사: 주원아 여기 악보책에 색 동그라미가 있지? 순서대로 연주해 볼래?
 (주원이가 핸드벨 연주를 한다.)
 교사: 잘하네.. 주원이도 이제 잘하는 구나. 민서도 주원이하고 같이 해볼래?
 핸드벨을 하나씩 나누어 연주하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

(2012.11.23. 주원, 자유선택활동시간)

주원이는 연주책을 보면서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원이가 부르는 대로 핸드벨을 연주하였다. 색에 상관없이 연주를 하기 때문에 민서가 주원의 연주가 맞지 않다고 이야기하였다. 주원이에게 악보책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설명해준 후 주원이는 연주활동을 계속할 수 있었다. 주원이와 민서가 연주활동을 나누어 할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의 연주 방법을 소개해 주었다. 두 음의 핸드벨을 하나씩 나누어 주어 한번씩 번갈아 가며 연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원이와 민서는 서로 연주해 보고 또 한번 바꾸어 연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사진 7> 그림책 '너는 누구니?' 활동

‘너는 누구니?’ 그림책활동의 시작으로 그림책을 통한 통합적 활동의 경험은 다문화가정 유아들에게 다음 그림책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주었다. 다음 선정된 그림책의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활동이 시작이 되었을 때 유아들은 노래로 그림책을 배울 수 있고 그림책으로 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음을 기대하며 교사에게 활동에 대한 내용을 묻는 유아들도 있었다.

다음으로 선정된 그림책은 ‘내 친구 깡총이’ 이다. 이 그림책의 경우 장난감 비행기를 날리다 장난감 비행기가 나무위에 걸려 나무위에 걸린 장난감 비행기를 꺼내려고 동물 친구들이 하나 씩 도와주어 장난감 비행기는 무사히 꺼낼 수 있었다는 내용이다. 이 그림책의 통합적 활동은 동물들이 하나씩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도레미’ 음계 순서로 손유희와 텡~ 소리를 내보고 비행기가 움직이는 다양한 움직임에 대해 음악적 셈여림, 빠르기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활동을 진행하며 초롱반 유아들의 수준에 맞게 색깔 탐색 놀이활동과 비행기가 움직이는 모습을 교실 바닥에 색깔테이프를 붙여 표현해 보는 창의적 활동을 계획하여 실행하였다.

민건: 텡~ 텡

지연: 텡 ~ 텡 잉

민건: 이이~잉

지연: 이이~잉

민건: 잉 잉 잉

지연: 잉 잉 잉

교사: 민건이랑 지연이가 재미있게 하고 있네.

민건: 재미있어요.

지연: (교사를 보면서 웃는다.)

(2012.11.23. 자유선택활동시간)

위 사례는 민건이가 음률영역에서 내 친구 깡총이의 제시한 자료로 손가

락으로 모양을 따라 소리를 내는 모습이다. 민건이가 시작하자 옆에 있던 지연이가 민건이를 따라 손가락을 움직이며 소리를 내어 모양을 따라 움직인다. 1차 언어활동에서는 지연이가 언어활동에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소극적인 참여로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부족한 모습이었다. 2차 활동의 두 번째 그림책에서는 지연이가 민건이의 말을 따라 비행기 소리를 흉내내는 모습을 보였다. 교사는 이러한 지연이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관찰 기록을 할 수 있었다. 추후 지연이지연이와 민건이는 교사가 격려한 뒤에도 한참을 음률영역에서 활동하였다. 서로의 손가락을 따라 지연이도 민건이에게 다가가 함께 하자는 무언의 제안을 하게 되었고 민건이 역시 이런 지연이와 함께 활동에서 자연스럽게 상호작용이 이루어졌다. 모든 활동에 참여하려는 의사를 보이며 주변에 있거나 또래 유아들이 놀이를 하지 않을 때 놀이감을 갖고 활동 하거나 또래 유아 옆의 의자에 앉아 또래 유아들이 놀이하는 것을 웃으면서 지켜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지연이는 그림책에 관심을 갖고 언어영역에서 그림책을 보며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어 1차 언어활동에서 볼 수 없었던 지연이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사진 8> 그림책 ‘내 친구 깡충이’ 활동을 하고 있는 유아들

음률영역에서의 활동을 진행하면서 초롱반 유아들과 다문화가정 유아들은

서로 다양한 소리를 만들어 내며 활동에 흥미를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내 친구 깡총이 활동을 하며 미술활동으로는 비행기를 만들어 보고 만든 비행기로 놀이터에서 비행기를 날려 보는 게임 활동이 이루어 졌다. 유아들은 그림책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음을 알고 다음에 활동하는 그림책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그림책 활동이 진행되면서 “엄마한테 그림책 사달라고 해야지”, “엄마랑 해볼 거야” 라고 이야기하며 그림책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모습이었다.

유아들은 물론 가정에서도 그림책활동에 관심을 보이면서 직접 선정된 그림책의 제목을 알려달라는 학부모의 문의가 오기도 하였다.

다음의 선정된 그림책은 ‘야! 비온다’ 활동을 진행하였다. ‘야! 비온다’의 그림책은 비오는 모습을 ‘우산을 쓰렴.’의 반복되는 문구가 있었다. 유아들과 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야! 비온다’ 활동은 비를 표현하는 표현활동과 미술영역, 과학영역에서의 통합활동을 진행하였다. 비가 오는 소리를 듣고 스카프로 표현해 보고 비가오는 모습을 라이트데스크에서 모래로 표현해 보았다. 처음보는 라이트데스크의 모래활동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다문화가정 유아의 비에 대한 표현을 관찰할 수 있었다.

비오는 모습 톡톡 톡톡하고 노래를 부르며 비가 오는 모습을 모래그림으로 표현해 보았다. 타박 타박 발자국은 어떻게 만들어 볼까? 치르르 치르르 자전거 거지나는 모습은 어떻게 할까? 바스락 바스락 나뭇잎이 떨어 지는 모습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교사와 유아가 상호작용을 통해 유아가 자유롭게 야 비온다 그림책 속 내용을 표현해 보았다.

다음 사진은 비오는 모습을 라이트데스크를 통해 모래로 표현해 보았다.



<사진 9> 그림책 ‘야! 비온다.’ 활동을 하고 있는 유아들

모래 그림의 활동을 표현하면서 유아들의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려 보거나 친구 또는 그림책 속의 동물의 모습을 그리는 유아들도 있었다.

승찬: 선생님 이거보세요.

교사: 우와 승찬이가 그린거야. 멋지다. 비오는 소리로 그려 보았니?

주원: 선생님 나 비오는 소리 그렸어요.

교사: 그래? 어떻게 그렸어?

주원: 이렇게요. 토폭 토폭

승찬: 하 비가 이렇게 생겼어?

교사: 그래 정말 멋지게 표현했구나

(2012.12. 3. 자유선택활동시간)

위의 사례에서는 승찬이가 교사에게 비오는 소리에 대해 교사에게 이야기 하는 모습을 보고 다문화가정 유아인 주원이도 교사에게 자신이 표현한 비에 대해 이야기해 주는 모습이다. 이렇듯 통합적 언어활동은 유아로 하여금 자신감을 갖고 초롱반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세 번째 그림책 활동을 통한 통합적 활동을 통하여 다문화가정의 유아들은 그림책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게 되었고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교사에게 또는 또래 유아들에게 설명하고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적극적인 활동에 대한 참여로 또래 유아

들과 다양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졌다. 교사는 다문화가정 유아가 자신의 표현에 관심을 갖기를 원할 때 즉각적 반응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은 다문화가정 유아가 교사에게 자신의 감정과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림책의 통합적 활동에 유아들의 폭발적인 관심과 호기심이 유아들로 하여금 다음그림책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였다. 교사로서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유아들은 “다음에는 뭐해요?” 라는 질문이 매일같이 교사에게 물었으며 교사는 이러한 유아들에게 “글세...어떤 그림책일까?” 라는 대답으로 유아에게 호기심을 갖게 하였다. 교사가 무언가를 만들거나 그림책을 들고 있을 때 다문화가정 유아는 “이거 다음에 하는 거예요?” 라는 질문을 하였고 이러한 다문화가정 유아의 반응에 교사 자신에게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림책 언어활동이 진행되면 될수록 더 다양한 활동과 아이들이 좋아하는 활동에 대해 찾게 되었다. 인터넷과 대학원 강의를 들으면서 새로운 것을 없는지 더 참신한 것은 없는지 대학원 강의를 더 기다리게 만들었다. 강의 내용을 좀 더 꼼꼼하게 챙기게 되었고 강의를 끝나면 교수님이 소개한 자료들에게 대해 더 묻고 사진을 찍어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림책의 다양한 자료들을 찾게 만들었다.

아이들은 그림책활동에 너무나 큰 관심을 보인다. 교사가 어떤 걸 하는지 무엇을 만드는지 궁금해 하며 교사에게 지나칠 정도의 관심을 갖는다. 그래서 인지 아이들은 “애들아 모이자”라고 이야기가 끝나기 무서울 정도로 정리를 한다. 이런 아이들이 때론 너무나 고맙지만 다음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더 준비해주어야 하는 부담감도 느낀다.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활동을 위해 계획했던 활동이었지만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활동은 물론 초롱반 모든 유아들이 즐거워 하고 재미있어하는 활동이 되었다.

(2012.12. 5 교사저널중)

초롱반 유아들의 기대감을 갖고 네 번째 그림책활동은 ‘꼬마비버와 메아리’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다. 다른 그림책활동과 같이 먼저 대집단 활동으로 유아들에게 그림책을 소개하고 그림책을 들려주었다. 이번 그림책활동에서는 그 동안의 그림책활동을 통해 자신감을 갖게 된 다문화가정 유아들이 주인공으로 동극활동을 계획해 보았다. 이 그림책활동은 동극활동과 협동작품의 배 만들기, 친구에게 그림편지쓰기 등의 활동으로 진행되었다.

유아들은 교사가 들려주는 그림책을 듣고 자유선택활동시간 언어영역의 비치된 그림책을 다문화가정 유아와 또래 친구가 함께 서로 노래를 나누어 대화형식으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관찰 되었다.

효주: 야호~

지연: 야호~

형준: 야호

민서: 나와 친구가 되어 즐래?

효주: 그래

지연: 그래

형준: 그래

효주: 우리 배 만들자. 스카프로 만들자.

(효주가 스카프를 갖고 온다.)

효주: 선생님 여기에 배 만들어도 돼요?

교사: 그래 만들어봐.

(2012.12.11 자유선택활동 중)

동극활동과 배를 만들어 보는 활동은 유아들이 혼자 할 수 있는 활동이 아닌 친구들과 함께해야 하는 협동활동이었다. 협동활동을 진행하며 다문화가정 유아들도 자연스럽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고 참여한 다문화가정 유아들도 역할을 갖고 동극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진 10> 그림책 ‘꼬마비버와 메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유아들

다양한 통합활동을 계획하면서 유아들이 그림책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고 흥미를 갖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다음 활동에 대해 많은 기대감을 갖으며 교사는 그림책활동에 다문화가정 유아들의 참여를 유도하며 활동 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 이러한 교사의 노력에 다문화가정 유아들은 언어활동은 물론 다른 영역의 통합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였으며 또래 유아들과의 상호작용의 기회도 늘어났다.

2) 유아 언어지도사의 개별언어지도

연구자가 1차 언어활동 실행 후 2차 언어활동계획단계에서 다문화가정 유아의 개별 언어지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계획하던 중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지도에 대한 안내와 관련 공문을 받았다. 다문화가정 유아의 개별언어지도사와 함께 계획하여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 개별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다문화지원센터의 언어지도사가 A어린이집을 주 2회 방문하고 초롱반의 오전 프로그램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오후에 방문하여 개별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별 언어활동의 경우 교실이 아닌 어린이집의 개별 공간에서 언어지도사와 다문화가정 유아의 1:1 지도로 진행계획하였다.

개별 지도의 경우 지역사회협력과 가정연계로 진행되었으며 활동이 시작되기 전 언어지도사와 다문화가정 유아들의 특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교류하여 언어지도사가 언어활동에 대한 내용의 진행방법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언어지도사가 언어활동을 계획할 때 초롱반 생활주제를 소개하여 생활 주제와 연계하여 활동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지도는 오전 하루일과가 끝나고 오후 활동에 이루어져 초롱반 활동시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간에 개별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다문화지원센터의 언어지도 교사가 어린이집을 방문하였다. 지난번 어린이 집에 방문하였을 때 다문화가정 유아를 만나보고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친축할 수 있는 다양한 소품도 준비하여 유아들을 맞이하여 주셨다. 처음 낯을 가리는 자연이는 교사옆에서 떠나지 않았고 오늘 첫 활동이 시작되면서 가만히 언어지도사만 바라 볼 뿐이었다. 눈을 깜빡 거리면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주원이와 형준이는 언어지도사 선생님이 조금은 낯설지만 언어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이였다. 언어지도사가 카드를 꺼내어 그림카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듯했다.

다양한 언어 활동 자료를 준비해 주시며 아이들이 언어교구를 놀러 보았다. 활동에 대한 결과는 아이들이 활동이 마무리 된 뒤 이야기 나눌 수 있었다.

(2012.11.12. 교사의 저널중에서)

언어 지도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면서 아이들의 발음에 더 신경을 쓰며 지도하게 되었다. 아이들이 언어지도사와 만나며 활롱을 다녀올 때 웃으며 교실에 들어 온다. 면담을 통해서 초롱반 활동내에서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적 발달을 위해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였다. 면담을 통해 이루어진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적 특성을 이해하고 발음을 교정해 줄 수 있도록 지도하기로 하였다. 그림책활동과 동시에 진행되었던 프로그램이어서 그림책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다문화가정 유아들과 상호작용을 하

며 발음을 더 주의 깊게 관찰해 보기로 하였다.

(2012.11.15 교사저널중에서)

위 사례에서는 언어지도사의 활동에 대해 연구자인 교사가 활동에 대한 내용을 소개 받고 일상생활에서 아이들의 언어발달을 위해 교사가 도울 수 있는 언어지도에 대해 서로 정보를 나눌 수 있었다. 유아의 발음에 교사가 적절한 반응을 하며 교사가 유아와 대화시 유아에게 부족한 발음을 다시 발음하여 볼 수 있도록 일상생활속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등을 전달받았다.

교사: 아이들이 마이쥬를 먹으면서 교실로 오네요.

언어지도사: 발음 교정을 할 때 마이쥬를 먹고 난 뒤 발음을 연습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연이와 주원의 경우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반면 형준이의 경우 주의가 산만하여 활동이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활동이 끝나고 교실로 돌아올 때 마이쥬를 먹고 오는 경우가 있어 발음교정시 사용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형준이는 주의가 산만하여 활동진행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2012.11.22. 교사의 저널중에서)



<사진 11 > 개별 언어 지도를 받고 있는 유아의 모습

3) 만 3세 초롱반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활동 개선을 위한 2차 실행평가

만 3세 초롱반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활동 개선을 위한 2차 언어활동은 그림책을 활용한 통합적 활동으로 대그룹 및 소그룹활동으로 진행되었으며 다문화지원센터의 언어지도사의 도움을 받아 다문화가정 유아의 개별 언어 지도를 실시하였다. 2차활동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림책에 관심갖기 시작하였다. 그림책을 활용한 통합활동을 통해 다문화가정 유아는 초롱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림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또래 유아들이 그림책을 보며 노래를 부르고 그림책의 내용에 대해 관심을 갖기를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다문화가정 유아들 또한 그림책에 관심을 갖는 모습을 보였다. 언어활동의 지원이 시작되기 전 다문화가정 유아들은 언어활동의 그림책에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 쌓기 영역의 블록이나 역할 영역의 인형놀이 외에 다양한 영역활동이 있음에도 전혀 참여하려하지 않았다. 2차 언어활동이 진행되면서 그림책을 활용한 다양한 영역 활동과 더불어 표현활동이 시작되었다. 자연스럽게 다문화가정 유아도 언어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노랫말에 나오는 그림책에 관심을 보이며 그림책을 보려고 언어영역의 도서영역을 직접 자유선택활동으로 계획하고 활동하는 모습이었다.

둘째, 함께하는 활동을 즐기기 시작하였다. 그림책을 활용한 활동이 진행되면서 유아들과 다문화가정 유아들은 함께하는 활동을 진행하였고 다양한 표현활동을 통한 협동 놀이활동이 진행되었다. 그러면서 또래 유아들간의 함께 진행하는 활동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었다. 유아들은 서로 표현되는 다양한 표현에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격려하면서 자신의 표현력을 늘려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다양한 표현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표현에 자신감을 갖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표현력을 관찰할 수 있었다.

셋째, 선정된 그림책에는 관심을 보였지만 그 외의 그림책에는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림책 활동으로 선정된 그림책으로는 만3세 초롱반유아들과 다문화가정 유아들의 관심이 높은 반면 그 외의 그림책에는 유아의 관심이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선정된 4권의 그림책을 활동이 진행되면서 하나씩 제시하여 언어영역에 제시해 주었는데 유아들은 이때 제시되는 그림책에 높은 관심이 있는 반면 다른 그림책들에게는 관심이 적었다. 잠시 그림책을 열어 보고 책장을 넘겨 보며 다 본 후 그대로 접거나 처음부터 선정된 그림책에만 관심을 보이는 유아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유아들의 반응에 대한 제한점을 느끼게 되었다. 초롱반 유아들의 경우 그림책에 대한 다양한 활동과 더 많은 그림책활동의 진행을 원하였으나 계획된 보육과정과 행사로 시간을 더 늘리는데 어려움이 있어 기존에 계획된 활동까지만 진행하였다. 좀 더 시간이 연장할 수 있었다라면 다른 그림책을 계획하여 다양한 그림책 통합활동이 이루어졌을 것이며 좀 더 다양한 그림책에 흥미를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넷째, 개별 언어지도의 가정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다양한 활동으로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활동이 이루어졌다. 어린이집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발달을 위한 연계지도를 소개받아 연구자인 교사가 자유선택활동 또는 일상생활을 하며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지도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주양육자인 다문화 어머니가 유아를 지도하기에 어려움을 느꼈다. 더불어 개별 언어지도가 12회차 지도 후 추후 어린이집에서가 아닌 다문화지원센터에서 개별 언어지도가 이루어졌음에도 다문화가정 유아들은 학부모의 직장시간 및 부재로 개별지도가 더 이상 불가능하였다.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지도 활동은 어린이집의 공간 협소와 어린이집의 행사등으로 계획된 12회차 활동만 진행할 수 있었다. 개별적으로 학부모가 다문화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다문화가정 유아들이 개별 언어지도를 받을 수 있음에도 학부모들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방문이 어려웠고 개별 언어지도가

더 이루어지지 못해 아쉬웠다. 개별 언어지도가 추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유아들의 언어발달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었을 것이다.

4. 만 3세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활동 지원을 통한 유아들의 변화

1) 긍정적으로 의사표현하기

언어활동이 진행되면서 다문화가정 유아들은 언어적 자극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다문화가정 유아의 이러한 언어적 자극을 받아 초롱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언어활동에 다양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더불어 그림책을 통한 통합적 활동에서는 언어활동뿐만 아니라 표현활동과 미술 활동 등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유아들은 언어활동과 다란 표현활동을 진행하면서 교사에게 자신의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교사로부터 긍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칭찬과 격려를 통해 다문화 가정 유아는 자신감을 갖고 초롱반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통합활동외의 수 조작 영역의 교구등에도 관심을 보이고 창의적인 활동에도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새롭게 제시해 주는 교구에도 관심을 보이며 교사에게 “이거 놀아도 돼요?” 라고 물어보고 교사가 교구에 대해 설명해 주기를 기다리기도 하였다. 교사가 다른 유아와의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동안 교사를 기다리며 교사와 이야기를 하기 위해 기다리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언어활동을 통해 다문화가정 유아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였던 것은 유아가 초롱반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으며 활동에 참여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학기 초의 또래 유아들의 활동을 지켜 보기만 하고 눈을 깜빡거리며 교사와 또래 유아와 전혀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지현이도 언어활동을 통해 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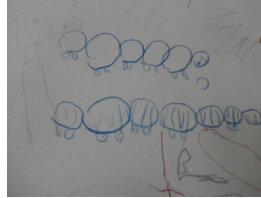
동에 관심을 갖고 활동에 참여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발음이 부정확하여 또래 유아와 상호작용이 어려웠던 주원이도 개별 언어지도를 통하여 활동이 시작하기 전 보다 정확한 발음으로 또래 유아와 상호작용하기에 어려움이 줄어들었다. 형준이의 경우 활동에 짧은 집중력이 개별 언어지도가 이루어지면서도 문제가 되었고 언어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꾸준히 언어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다문화가정 유아들은 언어활동을 통하여 언어적 표현의 자유로움을 가질 수 있었다. 긍정적인 표현을 통해 또래 유아와의 다툼보다 교사에게 요청하기를 하였으며 교사와 상호작용을 하며 또래와 상호작용의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었다.

2) 책보기, 노래부르기 및 말하기를 즐기기

다문화가정 유아는 언어활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활동에 대한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활동이 시작될 경우 언어활동을 선택하여 활동하기 보다는 친구들이 놀이하는 놀잇감을 놀이하거나 블록놀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림책활동을 진행하면서 다문화가정의 유아들은 책보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그림책 활동을 하면서 선정된 그림책을 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유아들은 그림책을 보면서 노래를 흥얼거리거나 또래 유아와 함께 그림책 활동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그림책활동을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이야기하여 학부모들 또한 어린이집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림책활동에 관심을 갖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사진 12> 다문화가정 유아가 그림책활동 후에 표현한 그림

위의 사진자료는 다문화가정 유아가 그림책의 내용을 보고 그림으로 표현한 모습이다. 유아들은 그림책의 통합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그림책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으며 다문화가정 유아가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유롭게 표현하고 이를 교사에게 보여 주며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교사에게 설명해 주는 유아도 있었다.

이렇듯, 그림책을 활용한 통합활동은 다문화가정 유아로 하여금 다양한 영역에서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신의 표현을 교사에게 또는 또래 유아에게 제시하면서 교사와 또래 유아와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다문화가정 유아의 이러한 다양한 표현을 격려하고 지원해주면서 유아들의 다양한 표현활동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3)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 형성하기

다문화가정 유아가 학기 초 초롱반의 활동에서 또래 유아들과 상호작용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또래 유아와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정확하지 못한 발음으로 또래 유아가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해 다툼이 생기기도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1차 언어활동이 진행되면서도 또래 유아가 다문화가정 유아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해 활동이 그대로 끝나버리거나 다문화가정 유아에게 발표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도 생겨났었다. 2차 언어

활동에서는 이러한 유아의 언어지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유아의 개별 언어지도가 이루어졌다. 언어지도사가 방문하여 언어지도를 하면서 유아는 자신의 부정확한 발음을 인지하게 되었고 발음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아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하면서 발음을 신경쓰며 반복해서 말하거나 수정하여 말하는 등의 노력이 보였고 또래 유아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러한 오류도 줄게 되었다. 또래 유아들은 학기 초 이해되지 않는 다문화가정 유아의 말에 무시하거나 못들은 척 하는 행동을 보였지만 활동이 진행되면서 다문화가정 유아가 느끼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도와주면서 함께 언어활동을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다문화가정 유아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경우 두 번, 세 번 말을 반복하여 다문화가정 유아에게 다시 물어보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면서 다문화가정 유아와 또래 유아와의 의사소통의 오류로 인한 다툼은 줄어들었다.



<사진 13> 언어활동을 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유아와 또래 유아들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A어린이집 만 3세 초롱반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활동에 대해 연구자인 교사가 인식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행한 실험연구이며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활동을 개선을 위한 과정과 개선과정에서 나타난 유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연구문제 중심으로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만 3세 초롱반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활동의 문제점

다문화가정 유아들은 입학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만 3세 초롱반에서 언어활동에 참여하는 것과 또래와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었다. 첫째, 다문화가정 유아들은 또래 유아들과 함께 놀이하고 활동하는 과정에서 원만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오성숙(2009)의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다문화가정 유아들은 우리나라 말의 사용에 자신감이 없고 언어능력의 혼란을 느끼며 또래 유아와 상호작용할 때 위축되고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둘째, 의사소통능력의 어려움으로 인해 다문화가정 유아들은 만 3세 초롱반에서 이루어지는 대그룹활동에서도 소극적인 참여를 하거나 이야기하기를 거부하는 등의 모습도 보였다. 이는 박민정과 이병인(2010)의 연구에서와 같이 다문화가정 유아들이 이야기나누기 활동이나 유아간의 상호작용의 어려움으로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소극적인 태도를 나타낸다는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셋째, 다문화가정 유아는 자유선택활동시간에 언어놀이를 거의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책보기 활동이나 언어교구활동 등의 언어활동을 선택하지 않고 단순한 쌓기 놀이나 소꿉 영역놀이 등의 영역활동을 선택하며 활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본 연구자의 언어활동의 개선과정을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2) 만 3세 초통반 다문화가정 유아를 위한 언어활동의 개선과정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활동의 개선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실행하였다. 먼저, 1차 언어활동으로 가정연계를 통한 대그룹 언어활동과 또래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소그룹 언어활동을 계획하였다. 2차 언어활동으로는 그림책을 활용한 통합활동과 다문화가정 유아의 개별언어지도 활동을 계획하였다.

1차 언어활동은 크게 대·소그룹으로 나누어 활동을 계획하여 진행하였다. 첫째, 가정연계활동을 계획하여 유아에게 친숙한 주제로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활동의 참여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가정연계활동인 ‘주말 지낸 이야기’ 활동은 발표형식의 이야기 나누기활동으로 진행되었고, ‘나의 이야기’는 학부모가 보내준 자료로 각 유아가 친구들 앞에서 이야기하며 발표하였다. 가정연계활동이 유아에게 지속적인 경험과 자발적인 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은경(2011)의 연구결과와 같이, 가정연계활동으로 이루어진 주말지낸 이야기는 다문화가정 유아에게 친숙한 주제로 활동이 진행되면서 다문화가정 유아가 자신감을 갖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더불어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어린이집 활동에 대한 관심도 증가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가정연계활동이 유아교육기관과 가정의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고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김희정(2011)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이다.

둘째, 또래와의 상호작용증진을 위한 소그룹활동을 진행하였다. 손 인형과 인형마스크를 이용하여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도모한 활동과 교구를 활용한 언어활동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다문화가정의 유아는 일반가정의 유아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언어활동을 하며 자신의 생각을 표현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또래유아가 먼저 다문화가정 유아에게 다가가 놀이를 제안하고 다문화가정 유아는 또래 유아와 함께 활동하며 활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김갑순과 김태인(2012)의 연구결과와 같이 다문화가정 유아들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언어를 확장하고 표현하면서 언어활동을 즐기고 상호작용을 이끌어 나간다는 측면에서 연구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더불어 언어활동을 하며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활동을 격려해 주었으며 교사는 다문화가정 유아가 발표시 다양한 질문과 반응을 보이며 다문화가정 유아가 다양한 자기 경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교사가 유아의 언어를 자극하고 유아에게 질문하여 정보를 줌으로써 유아의 반응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이정아(2013)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1차 언어활동의 평가에서는 활동의 한계점이 나타났고 이를 개선하고자 2차 언어활동을 계획하였다. 첫째, 그림책을 활용한 통합활동을 계획하였다. 그림책을 통한 통합활동은 강보라(2012)의 연구에서 사용된 그림책 통합활동의 내용에 기초해서 초롱반 만 3세 유아에게 적합한 내용의 그림책을 선정하여 적용하였다.

통합적 언어활동은 유아로 하여금 자신감을 갖고 초롱반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행되었다. 그림책을 통한 통합적 활동을 통하여 다문화가정의 유아들은 그림책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게 되었고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교사에게 또는 또래 유아들에게 설명하고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적극적인 활동에

대한 참여로 또래 유아들과 다양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졌다. 교사는 다문화 가정 유아가 자신의 표현에 관심을 갖기를 원할 때 즉각적 반응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은 다문화가정 유아가 교사에게 자신의 감정과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는 그림책이 다문화 가정 유아의 표현언어의 능력을 촉진과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다양한 방법의 표현해 보는 경험으로 언어능력을 향상시켰다는 김갑순과 김태인(201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그림책활동이 다문화가정 유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김주원(2012)의 연구와 같이 그림책의 속성이 다문화가정 유아에게 좋은 매개체가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즉, 그림책활동은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그림책의 다양하고 풍부한 소재와 내용은 다문화가정 유아로 하여금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하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다문화가정 유아의 개별언어 활동을 계획하였다. 금지윤(2008)은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능력의 발달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오성숙(2009)의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 유아의 자아정체감 및 성격발달을 위한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지원과 더불어 의사소통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지도를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개별언어 지도를 진행하였다. 다문화가정 유아가 또래와의 상호작용시 발음의 부정확함과 어눌한 발음으로 상호작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를 개선하고자 개별언어지도시 언어지도사가 다문화가정 유아와 발음지도와 상황에 맞는 언어사용과 일상생활에서의 어휘 등 언어지도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개별언어 지도를 통하여 다문화가정 유아는 말하기에 흥미를 갖고 정확한 발음으로 교사와 또래와의 상호작용시 자신감을 갖고 이야기하려고 노력하였다.

3) 언어활동 지원을 통한 다문화가정 유아의 변화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활동을 개선함으로써 다문화가정 유아들의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첫째, 가정연계활동을 통해 다문화가정 유아가 친숙한 주제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다. 다문화가정 유아는 주말동안 경험한 일을 회상하여 또래유아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 하며 자신에게 친숙한 주제로 또래와의 상호작용의 경험을 가질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또래유아와 긍정적 상호작용의 경험하고 다문화가정 유아가 경험한 일에 대해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 유아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 주는 또래유아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김성자(2007)의 연구결과와 같이 가정연계활동이 타인의 생각과 느낌을 공유하고 유아의 생각과 느낌을 자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문화가정 유아들은 가정연계를 통한 언어활동을 통하여 긍정적인 표현의 경험을 갖게 되고 또래 유아와의 다툼보다 교사에게 요청하기를 하였으며 교사와 또래와의 상호작용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둘째, 언어활동을 통해 다문화가정 유아는 초롱반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관심을 갖으며 활동에 참여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갖기 시작하였다. 언어활동을 진행하며 다문화가정 유아는 교사의 칭찬과 격려를 통해 자신감을 갖고 활동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언어활동 이외의 다른 영역에도 관심을 보이고 창의적인 활동에도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새롭게 제시해 주는 교구에도 관심을 보이며 교사에게 “이거 놀아도 돼요?” 라고 물어보고 교사가 교구에 대해 설명해 주기를 기다리기도 하였다. 교사가 다른 유아와의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동안 교사를 기다리며 교사와 이야기를 하기 위해 기다리는 모습도 나타났다.

셋째, 언어활동 진행되면서 다문화가정 유아들은 언어적 자극을 지속적으

로 받을 수 있었다. 다문화가정 유아는 그림책을 통한 통합적 활동에서 언어활동뿐만 아니라 표현활동과 미술 활동의 표현의 욕구를 나타냈다. 유아들은 언어활동과 연관된 표현활동을 진행하면서 교사에게 자신의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교사로부터 긍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발음이 부정확하여 또래 유아와 상호작용시 다툼으로 상호작용이 마무리 되었던 주원이는 언어활동을 통하여 활동이 시작하기 전 보다 정확한 발음으로 또래 유아와 상호작용에 관심을 보였다. 눈깜빡거림으로 반응했던 지연이의 경우 또래의 언어활동을 모방하며 의사표현의 모습이 나타났다.

넷째, 그림책활동을 진행하면서 다문화가정의 유아들은 책보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그림책 활동을 하면서 선정된 그림책을 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유아들은 그림책을 보면서 노래를 흥얼거리거나 또래 유아와 함께 그림책 활동에 대해 상호작용하면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다문화가정 유아는 일반 가정 유아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언어활동에 참여하게 되며 이러한 언어활동의 참여는 다문화가정 유아의 자신에 대한 생각의 표현의 기회를 제공한다(김갑순, 김태인, 2012)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다섯째, 다문화가정 유아의 교사와 또래 유아간의 상호작용이 증진되었다. 자신의 표현을 교사에게 또는 또래 유아에게 제시하면서 표현하려고 노력하였다. 다문화가정 유아의 이러한 표현능력을 격려하고 지원해주면서 다문화가정 유아들의 표현활동을 확장시킬 수 있었다. 이는 그림책이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 능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김주원(201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다문화가정 유아는 또래 유아와 상호작용의 경험을 통하여 표현의 기회를 갖게 되고 이러한 상호작용과 표현의 기회는 나아가 적극적인 언어활동으로 연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언어발달의 민감기인 영유아기에 개별적인 발달수준에 적합한 언어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다문화가정 유아의 경우 유아교육기관이 자연스럽게 다른 유아들과 어울리며 언어적 상

호작용을 통해 발달하는 기회의 장의 역할을 해야함을 알려준다.

2. 제언

본 연구자는 최근 유아교육기관의 현장에서 다문화가정 유아가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언어활동의 어려움과 더불어 또래 유아와의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만3세 초롱반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활동 개선을 위한 언어활동을 실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제한점을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A어린이집 만3세 초롱반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학급의 담임인 연구자가 언어활동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실행한 연구이다. 하지만 만 3세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활동 개선의 실행 연구로 연령이 한정적인 부분이 있어 개선된 언어활동의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의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활동에 대한 사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다문화가정 유아를 위한 유아교육기관과 다문화가정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누리과정의 확대 시행에 따른 다문화가정 유아의 담당 교사의 인식조사 연구와 더불어 누리과정의 다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한 연구도 의미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다문화가정 유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 장보라 (2012). 그림책을 활용한 창의적 유아음악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금지윤 (2008). 유아교육기관의 다문화가정 유아 지도 현황 및 교사의 요구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갑순, 김태인 (2012). 그림책 중심의 언어활동을 통한 다문화 가정 유아의 언어적 변화 탐색. **한국교육문제연구**, 20, 95-120.
- 김경아, 이경화, 이성숙 (2010). 유아언어교육. 경기: 공동체
- 김규수, 조윤영, 조진희 (2012). 다문화 가정 유아의 언어능력과 또래놀이 상호작용, 교사-유아 상호작용, 교실 문해환경과의 관계. **열린 유아교육연구**, 17, 49-74.
- 김성자(2007). 가정연계 유아 책읽기 프로그램의 효과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정원 (2010). 유아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경기: 공동체
- 김주원 (2012). 다문화가정의 유아 언어발달을 위한 동화표현활동.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지영 (2013). 유아언어교육에 대한 유아교사의 개념도 분석. 신라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현경 (2009).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 관련 변인 분석.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희정(2011). 가정과 연계한 동화 극화활동이 유아의 창의성과 그리기 표상능력에 미치는 효과.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민정, 이병인 (2010). 다문화가정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과정과 상호작

- 용 행동유형에 관한 근거이론적 접근. **특수교육학연구**, 45, 129-151.
- 박주희, 변길희, 심성경(2008). 다문화 가정 유아교육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 **한국교원교육연구**, 25(2), 183-200.
- 박찬옥 (2011). 유아다문화와 교육. 서울: 창지사
- 방은경 (2011). 가정연계 유아 기초 체력증진 프로그램의 구성 및 효과.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봉진영 (2011).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녀 양육과 교사의 교육 경험에 대한 탐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서종남 (2009). 다문화와 교육. 서울: 학지사
- 성윤니 (2011). 만 5세 슬기반의 동화 들려주기 활동에 대한 실험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손명희 (2009). 만 5세 맑은반의 미술관 관람 활동에 대한 실험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안은주 (2001). 가정과 연계한 그림책 읽기 활동이 만 3세 유아의 발생적 읽기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안지혜 (2012). 그림동화책을 활용한 통합적 문학 활동이 다문화가정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오성숙 (2009). 다문화가정 어머니 개인변인, 가정환경 자극과 유아 언어능력의 관계.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오정선 (2011). 적극적 부모역할훈련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아존중감과 양육태도, 의사소통에 미치는 효과.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유승애 (2009). 4,5,6세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발달실태. 건국대학교 대

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유홍옥 (2009). 유아를 위한 다문화 교육. 서울: 양서원
- 이만석 (2010). 교수적합화를 통한 초등학교 정신지체 장애아동의 통합 체육 실행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용숙 (2005). 실행연구방법. 서울: 학지사
- 이은경, 오성숙 (2012). 어머니의 언어사용 환경에 따른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양상. **열린유아교육연구**, 17, 177-205.
- 이정아 (2013). 다문화가정 유아의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이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능력에 미치는 효과. **한국영유아보육학**, 77, 101-122.
- 이지영 (2011).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부모스트레스가 자녀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차숙 (2005). 유아언어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이한솔 (2011).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사회적 지지와 자녀의 탄력성 및 유아교육기관 적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은주 (2010). 만 3세 또래관계형성에 관한 최근 연구 동향 분석.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정운 (2013). 만 3세 유아들의 ‘그림책 읽기’ 의미탐색.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남미 (2009). 유아 언어 교육. 서울: 창지사
- 정순연 (2008).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과 유아 언어 능력과의 관계. 한국교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혜숙 (2012). 만3세 이야기 나누기 활동에 대한 실행연구.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미영 (2011).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영유아기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 멘토링 과정 탐색.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조성은 (2012). 만 5세 유아바깥놀이의 효과적 운영에 관한 실험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주효주 (2012). 다문화가정 유아의 또래간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음악극 프로그램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윤희 (2010). 만3, 4세 혼합연령 학급에서의 수업활동 개선을 위한 실험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Bloom, L. (1973). *One word at a time*. The Hague: Mouton.
- Brown, R. (1973). *A First Languag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Pearson, B. Z., Fernandez, S. C., Oller, D. K. (1993). Lexical development in bilingual infants and toddler: Comparison to monolingual norms. *Language Learning*, 43, 345-368.
- Chapman, R. S., & Miller, J. F. (1975). Word order in early two and three word utterances: Does Production precede comprehension?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18, 355-371.
- De Villiers, J. G., & de Villiers, P. A. (1993). A cross-sectional study of the acquisition of grammatical morphemes in speech. *Journal of Psycholinguistic Research*, 2, 267-278.
- Erika, Hoff (2000). *Language Development (2nd)*. Wadsworth. 이현진, 박영신 김혜리 역 (2001). *언어 발달* 서울: 시그마프레스
- Kemmis, S., & McTaggart, R. (1988). *The action research Planner* (3rd ed.). Geelong, Australia: Deakin University Press.
- Kemmis, S., & McTaggart, R. (2000).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In N.

Denzin & Y. Lincoln (eds),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on teaching(2nd ed, 507-606). London: Sage Publications.\

Templin, M(1957). Certain language skills in children. Minneapolis: UniversityofMinnesotaPress

Webster's Encyclopedia Dictionary (1993). New Yord : Ottenheimen.

교육인적자원부홈페이지. <<http://www.moe.go.kr>>

다문화가족지원 포털 사이트. <<http://www.liveinkorea.kr>>

서울특별시 보육포털서비스. <<http://iseoul.seoul.go.kr>>

안전행정부홈페이지. <<http://www.mospa.go.kr>>

여성가족부홈페이지. <<http://www.mogef.go.kr>>

청와대홈페이지. <<http://www.president.go.kr>>

출입국 · 외국인정책홈페이지. <<http://www.immigration.go.kr>>

통계청홈페이지. <<http://www.nso.go.kr>>

ABSTRACT

Multicultural Children 3 years old and half-lanterns for improving
the language of the action research activities

Kim, Ja-hee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A nursery lantern present study homeroom teacher by authors Multicultural Children are interested in improving the language of the activity performed is action research. Multicultural Children takes place in a semi-lanterns language while engaging in activities to identify the issues facing them through the implementation process for improving the language of multicultural activities to improve infant was Depending on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were set.

1. three lanterns half multicultural language activities for preschoolers What is the problem?

2. three lanterns half multicultural language activities for preschoolers What is the process of improving?

3. three lanterns half multicultural activities for toddlers improve language appeared in the process of change in infants What?

The purpose of this study three lanterns A half-day care of the infant language activities for multicultural teacher researcher recognized this problem, based on research to improve the execution is done. Multicultural Children 3 years old and the language of anti-lanterns for action in March 2012 Multicultural Children are aware of the problem of language activities August 20, 2012 to January 4, 2013 from 20 weeks to plan execution and evaluation Multicultural Children in the years activities improve language came out.

In this study, Multicultural Children's peer relations problems in verbal communication to improve recognize and action research to explore ways to improve the pre-planning stage, the primary development stage, the primary development activity evaluation, secondary development stage and secondary activities were conducted in evaluation activities in addition to the language of Multicultural Children in conjunction with the local community through support of support multi languages maps twice a week in the hospital and the center was done. Language Consultant to support activities of the individual languages of the activities or content of this topic was conducted in consultation with researchers.

Data analysis of this study, only three years old lantern half multicultural activities for infants free choice made at the time of

Multicultural Children vs. small-group language activity was achieved through the progression. Observations, video recording, teacher conferences, infant discussions, journal writing was used as the method of. This map is a separate language consisting of individual languages and language Instructor activities an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terview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three lanterns half multicultural infants and toddlers play with their peers and in the course of action does not interact smooth the problem, due to the difficulty of communication that takes place in half for lanterns. Subgroups to participate in the language of refuse to issue, free choice of activities was a problem that does not choose to play.

Second, 20-week language teachers in the process of improvement of the activities of the activities for the language, the language of the various methods of small group activity was conducted. Primary language activities language activities to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the opportunity to update ping language activities that may be of interest to children associated family-friendly activities were carried out. Multicultural Children above the age of infants presented their stories seem to be interested in language activities and peers to participate in language activities with infants look appeared. Activities to complement the primary language by modifying the activity was planned secondary language.

Third, second language activities using picture books, integrated

planning activities was carried out. Multicultural Children have an interest in the books by topic made in many areas, participated in integrated activities. Multicultural Children language activities and integrated activities was interested in picture books and are interested in expressive activities through integrated activities, respectively.

Fourth, the Multicultural Children's individual language map was performed. Multicultural Center, with the support of local languages by Instructor A Multicultural Children's Nursery visit was conducted to map the individual languages. Multicultural Children through individual languages on maps and in everyday life, peer relationships and learn to use a variety of vocabulary and communication barriers were corrected for the incorrect pronunciation. Language Instructor of individual languages and language activities across the map to communicate confidence, respectively.

부 록

<부록 1> 만3세 초롱반 언어활동

<부록 2> 다문화가정 유아의 개별언어지도

<부록 1> 만3세 초롱반 언어활동

| | |
|-------------|---|
| 활동명 | 가정연계활동 - 주말지낸이야기 |
| 목 표 | 주말에 있었던 일을 회상해보고 이야기 할 수 있다. 친구의 발표를 귀담아 들을 수 있다. |
| 활동내용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말 지낸 일을 회상한다. -가정에서 준비한 주말이야기 수첩을 꺼내어 나의 주말이야기를 회상하여 본다. 2. “주말에 뭐했니?” 질문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발표할 유아가 손을 들어 또래 유아와 이야기를 한다. 3. “나는 주말에~” 라고 이야기하며 이야기를 시작한다. 4. 가정에서 준비한 주말의 사진이나 그림, 공연자료등을 친구들에게 보여주며 소개한다. 5.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자료를 책상에 전시하여 친구들과 함께 볼 수 있도록 한다. |

| | |
|-------------|---|
| 활동명 | 가정연계활동 - 나의 이야기 ‘너는 특별하단다.’ |
| 목 표 | 나의 모습을 친구들에게 발표해 본다. 나의 차례대로 이야기할 수 있다. |
| 활동내용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정에서 유아의 어릴적 사진을 준비하여 발표자료를 모은다. 2. 유아가 나와 1살부터 지금까지 나의 모습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준다. 3. 1살 때 모습과 2살 ~ 지금까지의 모습을 소개하며 내가 변화된 모습을 살펴 본다. 4. 발표를 한 후 언어영역 벽면에 두어 유아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한다. |

| | |
|-------------|--|
| 활동명 | 가을 곡식 글자판 |
| 목 표 | 가을의 곡식으로 글자를 만들어 볼 수 있다. 쌀, 팥, 조, 수수등의 곡식으로 글자를 꾸며 볼 수 있다. |
| 활동내용 | <p>1.가을 곡식이 담겨진 판을 관찰하며 가을 곡식을 탐색해본다. (쌀, 팥, 조, 수수) “이 곡식은 무엇일까?” “곡식을 만져 볼까요?”</p> <p>2.가을 곡식의 판위에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려본다. “여기 통안에 곡식이 있지요?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려볼 수 있 데요. 여기에 그림을 그려볼까요?”</p> <p>3.가을 곡식 낱말카드를 곡식 밑에 두어 글씨를 따라 써 본다. “글자카드를 곡식 밑에 두어 손가락으로 따라 글씨를 써보아 요.”</p> |

| | |
|-------------|---|
| 활동명 | 손인형과 동물 가면놀이 - 친구가 좋아요. |
| 목 표 | 내가 친구가 되어서 친구와 이야기를 해 볼 수 있다. 친구의 모습을 관찰하고 친구의 모습을 흉내내어 본다. |
| 활동내용 | <p>1. 자유선택활동을 하며 유아와 언어영역에서 교구 소개를 한다.</p> <p>2. 친구의 얼굴이 있는 교구를 교사가 먼저 손에 넣어 친구 처 럼 이야기한다.</p> <p>3. 안녕~ 난 규래야.. 수민아 나야 나~ 라고 이야기하며 친구에 게 말을 걸어 본다.</p> <p>4. 수민이에게 이야기를 하며 수민도 손에 넣어 규래처럼 되어 본다.</p> <p>5. 두 유아가 서로 다른 친구의 사진이 붙어 있는 형질을 손에 넣어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본다.</p> |

| | |
|-------------|--|
| 활동명 | 가을 낱말 3단카드 |
| 목 표 | 가을에 볼 수 있는 것의 이름을 그림과 비교하여 알맞게 말할 수 있다. 3단카드로 낱말을 가을에 볼 수 있는 글자를 알아본다. |
| 활동내용 | <p>1. 낱말카드의 글자를 유아들과 함께 보며 어떤 그림인지 이야기를 나눈다. “이 카드에 그림이 있어요, 어떤 그림일까요?”</p> <p>2. 그림만 있는 낱말카드를 제시하여 어떤 그림인지 이야기해본다. “여기에 있는 그림은 무엇일까?”</p> <p>3. 글자만 있는 낱말카드를 제시하고 그림만 있는 낱말카드와 연결한다. “여기 허수아비 그림이 있네요? 그럼 짝꿍 글자카드는 어디있을까?”</p> <p>글자와 그림이 있는 카드를 보며 짝꿍 글자카드를 찾아 본다.</p> <p>4. 익숙해지면 그림만 보며 글자를 찾아 본다.</p> |

| | |
|--------------------|---|
| <p>활동명</p> | <p>그림책 - 너는 누구니?</p> |
| <p>목 표</p> | <p>그림책으로 노래하는 경험을 갖을 수 있다. 그림책의 이야기로 다양한 놀이를 즐길 수 있다.</p> |
| <p>활동내용</p> | <p>▷ 인사 나누기 -너는 누구니? 나는 김주원 -너는 누구니? 나는 김형주 (유아가 도미노처럼 너는 누구니? 질문에 내 이름을 말하고 옆에 있는 유아에게 너는 누구니? 라고 질문한다.)</p> <p>▷ 나는 누굴까? I (게임활동) -한 유아가 눈을 가리고 다른 친구의 손을 잡는다. - “나는 누굴까?” -눈을 가린 친구가 이야기를 한다. 손을 잡은 친구의 이름을 맞춘다.</p> <p>▷ 나는 누굴까? II (스카프 활동) -나는 누굴까? -불투명한 스카프로 친구와 함께 스카프로 가리고 내 이름을 말해 본다. -친구의 목소리를 듣고 누구 인지 이야기 해 본다.</p> <p>▷ 너는 누구니? (가정연계활동) -그림책이야기를 안내문으로 소개하고 엄마,아빠와 이야기한다. -그림책의 “너는 누구니?” 를 엄마 아빠와 함께 하고 이야기했던 내용을 너는 누구니? 활동지에 적어 오거나 사진을 찍어 어린이집으로 갖고 온다. -준비한 자료는 이야기 나누기 시간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본다.</p> |

| | |
|--------------------|---|
| <p>활동명</p> | <p>그림책 - 내 친구 깡총이</p> |
| <p>목 표</p> | <p>그림책으로 노래하는 경험을 갖을 수 있다. 그림책의 이야기로 다양한 놀이를 즐길 수 있다.</p> |
| <p>활동내용</p> | <p>▷ 인사 나누기 -등원하여 유아들과 노래를 부르며 인사 나누기를 한다. (소윤이도 왔어요. 수민이도 왔어요. 민우도 왔어요. ~)노래 부르며 인사나누기를 한다.</p> <p>▷ 스카프 (색의 혼합) -유아가 큰 스카프를 이용하여 다양하게 교실 바닥에 내려 놓는다. 교사가 스카프 노래를 부르며 스카프로 만들어보자. 스카프로 만들어보자.. 반복하며 유아의 자유롭게 스카프로 바닥을 꾸밀 수 있도록 한다. 순서대로 노래를 부른다. <빨간색이 있어요. 초록색이있어요. 노란색이있어요. 주황색이있어요. ...></p> <p>▷ 선따라 걷기 (신체표현) -다양한 모양의 선을 만들어 유아가 소리내어 선 위를 걷는다. 스카프를 이용하거나 리본 막대 ,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선위를 걸어 보기도 한다.</p> <p>▷ 동극 -그림책의 다양한 동물들을 역할을 나누어 동극활동의 경험을 갖는다. -유아들이 직접 만든 동물 머리띠를 하고 “코끼리가 있어요. ~내가 도와줄게.” 그림책의 이야기를 대화체로 각색하여 유아들이 친구들과 동극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p> |

| | |
|--------------------|--|
| <p>활동명</p> | <p>그림책 - 야! 비온다</p> |
| <p>목 표</p> | <p>그림책으로 노래하는 경험을 갖을 수 있다. 그림책의 이야기로 다양한 놀이를 즐길 수 있다.</p> |
| <p>활동내용</p> | <p>▷ 비 표현하기 (라이트데스크): 야 비온다 동화를 듣고 모래로 표현하기. 비오는 모습 톡톡 톡톡 노래를 부르며 비가 오는 모습을 모래 그림으로 표현해 본다. 타박 타박 발자국은 어떻게 만들어 볼까? 치르르 치르르 자전거지나는 모습은 어떻게 할까? 바스락 바스락 나뭇잎이 떨어 지는 모습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교사와 유아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아가 자유롭게 야 비온다 동화 속 내용을 표현해 본다.</p> <p>▷ 우산을 쓰렴 (미술활동) - 동화속 내용의 그림자료를 준비한다. 우산을 쓰기 전의 그림자료를 준비하여 미술영역에 준비해 둔다. - “비가 오는데 친구들이 우산을 쓰지 않고 있네? 우산을 씌워 줄까?” - 그리기 자료(색연필, 싸인펜)로 우산을 쓰지 않은 친구들에게 우산그림을 그려 우산을 씌워 준다.</p> |

| | |
|--------------------|--|
| <p>활동명</p> | <p>그림책 - 꼬마 비버와 메아리</p> |
| <p>목 표</p> | <p>그림책으로 노래하는 경험을 갖을 수 있다. 그림책의 이야기로 다양한 놀이를 즐길 수 있다.</p> |
| <p>활동내용</p> | <p>▷ 야호 ~ 야호 내 목소리가 들리니? (탐색활동) -종이컵과 종이컵을 연결하여 종이컵 전화기를 만든다. “꼬마비버가 야호~ 했을 때 ~ 저 멀리서 야호~ 라고 소리가 들렸어요.” -종이컵과 연결된 종이컵 전화기를 두 친구가 서로 마주 잡고 야호 ~ 하며 친구의 소리를 들어 본다. -야호, 안녕, 사랑해. 등의 짧은 말을 전하며 들을 수 있도록 한다. -자유선택활동시간 유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 준다.</p> <p>▷ 산책활동 -어린이집 주변 산책하기 (동망산 산책하기) -숲에 올라가 “야~ 호” 신나게 불러 보기</p> <p>▷ 동극활동 -꼬마 비버와 메아리에 나오는 동물 친구들의 역할을 정하여 동극활동을 한다. -역할을 정하지 않은 유아들은 스카프로 배를 만들어 전체 유아가 참여하는 동극활동을 한다.</p> |

<부록 2> 다문화가정 유아의 개별언어지도

| | |
|--------------------|---|
| <p>활동명</p> | <p>사전 검사 - 기본 어휘 발음하기</p> |
| <p>목 표</p> | <p>언어발달지도사와 활동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명사40개 중 80%이상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 유아의 개별 어휘 능력을 확인해 볼 있다.</p> |
| <p>활동내용</p> | <p>* 활동내용</p> <p>1. 어휘 익히기 한글톡톡을 보면서 각 동물의 특징을 이해하고 동물명칭을 익힐 수 있도록 한다. *목표 어휘: 코끼리, 원숭이, 호랑이, 사자, 강아지, 오리, 닭, 토끼, 소, 곰</p> <p>2 . 인형 맞추기 동물인형을 주머니에 넣고 동물 특징을 한가지씩 말하면서 어떤 동물인지 맞추기 놀이를 하면서 각 동물의 특징과 세부부위 명칭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게한다. *목표 어휘: 부리, 다리, 꼬리, 뿔</p> <p>3. 그림카드 5장보고 설명하기 그림카드 5장을 보면서 그림마다 적절한 동사를 사용하여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목표 어휘: 달리다, 메다, 혼나다, 마시다, 던지다</p> |

| | |
|-------------|---|
| 활동명 | 사전 검사 - 유아의 수세기 |
| 목 표 | 언어발달지도사와 활동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자주쓰이는 동사 25개 중 80%이상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 |
| 활동내용 | <p>1. 수세기 컵쌓기를 하면서 컵에 그려진 숫자와 숫자별로 그려진사물을 보고 수세기를 하면서 숫자 명칭을 익히고 사물을 세면서 '~마리', '~개'를 붙여서수세기를 할 수 있도록 한다.</p> <p>2. 그림카드를 보고 설명하기 5가지 그림카드를 보고 동사를 사용해 '던지다, 사다, 자르다, 접다, 앓다'를 사용해 유아가 그림카드를 보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목표 어휘: 던지다, 사다, 자르다, 접다, 앓다</p> <p>3. 어절길이 늘리기 한 회기내에 3어절 문장을 사용하여 표현하도록 강화한다. 유아가 2어절 문장을 사용할 때 그 문장에 적절한 1어절을 붙여 들려주고 유아가 따라 말하게 한다.</p> |

| | |
|-------------|--|
| 활동명 | 일상생활 어휘 익히기 - 명사 익히기 |
| 목 표 | <p>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동사 익히기</p> <p>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명사 익히기(사물의 기능 이해하고 표현하기)</p> <p>도구격 조사 사용하기(~로, ~으로)</p> <p>‘많다, 적다’ 차이 이해하기</p> |
| 활동내용 | <p>1. 그림카드 10장을 보고 적절한 동사어휘를 사용해 표현하기</p> <p>2. 사물의 기능 익히기+도구격 조사 사용하기 상황전개카드 ‘무엇’ 을 보고 사물의 기능을 이해하고 조사 ‘~로/ ~으로’ 를 사용해 표현할 수 있게 한다. 예) 망치로 못을 박아요, 소화기로 불을 꺼요</p> <p>3. 그림 색칠하기 많다, 적다 차이를 느낄 수 있는 그림을 색칠하고 수를 세어 보면서 그 차이를 유아가 느낄 수 있도록 한다</p> <p>1. 그림카드 10장을 보고 적절한 동사어휘를 사용해 표현하기</p> <p>2. 시장놀이 시장놀이를 통해서 시장에서 자주 쓰는 어휘와 상황에 맞는 말을 익힐 수 있도록 한다. *목표어휘: 계산, 계산대, 동전, 거스름돈, 어서오세요, 안녕히가세요, 감사합니다, 얼마예요?, 카트, 바구니</p> <p>3. 찰흙놀이를 통해서 ‘길다/짧다’ 의 차이 이해하고 표현하기</p> |

| | |
|-------------|--|
| 활동명 | 단어 명칭 알기 |
| 목 표 | 언어발달지도사와 활동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자주쓰이는 명사40개 중 80%이상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 'ㄹ'발음 연습하기 |
| 활동내용 | <p>1. 동물 명칭+위치부사 탈 것 퍼즐을 맞추면서 유아가 탈 것 어휘를 익히고 동시에 지도사가 '위, 아래, 옆'을 붙여 퍼즐을 맞추면서 유아가 자연스럽게 위치부사를 이해 할 수 있게 한다. *목표어휘: 사자, 호랑이, 얼룩말, 토끼, 돼지, 강아지, 고양이, 말, 하마 * 활동 예) 사자 옆에 호랑이 맞춰요. 토끼 위에 돼지 맞춰요.</p> <p>2. 'ㄹ'발음 연습 사탕을 'ㄹ'조음점에 갖다대고 유아가 'ㄹ'을 발음할 때 혀끝을 조음점에 대고 발음할 수 있도록 한다.</p> <p>3. vcv음절 발음하게 하기 ex)아라아라아라아라, 이리이리이리이리</p> |

| | |
|--------------------|---|
| <p>활동명</p> | <p>‘ㄹ’ 초성과 종성 익히기</p> |
| <p>목 표</p> | <p>언어발달지도사와 활동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자주쓰이는 명사40개 중 80%이상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 'ㄹ'발음 연습하기</p> |
| <p>활동내용</p> | <p>1. 종성'ㄹ'을 포함하는 단어 유아가 종성 'ㄹ'을 포함하는 어휘를 종이에 붙이면서 아동이 종성'ㄹ'을 정확하게 발음 하는지 살펴본다.</p> <p>2. 초성 'ㄹ' 발음연습 '알랄라라 라, 알랄라라 래, 알랄라라 로, 알랄라라 루, 알랄라라 리'를 통해 유아가 'ㄹ'발음 연습을 하도록 한다.</p> <p>3. 주격조사 '가' 포함해서 말하기 뽕뽕이 감정어휘를 보고 유아가 주격조사 '가'를 포함하여 발화 하도록 유도한다. 예) 뽕뽕이가 아파요, 뽕뽕이가 슬퍼요</p> |

| | |
|-------------|---|
| 활동명 | 일상 생활 어휘 사용하기 |
| 목 표 | <p>1. 언어발달지도사와 활동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자주쓰이는 명사 40개 중 80%이상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p> <p>2. '리'발음 연습하기</p> |
| 활동내용 | <p>1. '리'를 포함한 단어 읽기 오리, 꼬리, 코끼리, 리본, 리어카, 요리</p> <p>2. 목욕놀이 목욕놀이를 하면서 동사 '~씻어', '~닦아'와 같은 동작어 를 표현하고 목욕 시에 자주 접하는 사물을 익히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목표어휘: 욕조, 샴푸, 비누, 수건, 씻어, 닦아</p> <p>3. 놀이터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사물 익히기 한글톡톡을 보면서 놀이터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사물을 익히고 표현할 수 있게 한다. *목표어휘: 시소, 미끄럼틀, 철봉, 그네, 정글짐</p> |

| | |
|-------------|---|
| 활동명 | 중성 단어 익히기 |
| 목 표 | <p>1.언어발달지도사와 활동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자주쓰이는 명사 40개 중 80%이상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p> <p>2. '르'발음 연습하기</p> |
| 활동내용 | <p>1. 중성 'ㄱ', 'ㄷ', 'ㄹ', 'ㄴ', '비', 'ㅇ'을 포함한 단 어로 발 음연습하기 *단어목록: 닭, 책, 약, 꽃, 못, 옷, 감, 곰, 감자, 말, 팔, 빨, 밥, 컵, 입, 빵, 공, 당근</p> <p>2. 자동차 경주하기 '소방차, 경찰차, 레미콘, 사다리차, 트럭, 포크레인' 중 에서 두가지를 골라 지도사와 자동차경주를 하면서 '빨라요', '느려요'를 이해하고 표현 하게 한다. *목표어휘: 출발, 경주, 도착, 소방차, 경찰차, 레미콘, 사다리 차, 트럭, 포크레인,빨라, 느려</p> <p>3. 과일, 야채 명칭 복습 과일과 야채 어휘를 자르면서 유아가 과일과 야채 명칭 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지도사가 딸기를 들고 '이거 수박이에요?' 식으로 유아가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하고 유아가 적절하게 '네/아니오'라고 답 할 수 있게 한다.</p> |

| | |
|-------------|--|
| 활동명 | 목적격 조사와 도구적 조사 |
| 목 표 | 1. 목적격 조사와 도구적 조사 사용을 올바르게 하기 2.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사물의 명칭과 그 기능 알기 3. 초성'ㄹ'과 종성 'ㄷ' 발음 연습하기 |
| 활동내용 | 1. 목적격 조사 '을/를', 도구적 조사 '으로/ 로'사용해 말 하기 5장의 사물그림을 먼저 살펴보고 이게 각자 언제 사용되는 것인지 유아에게 알려주고 5가지의 사물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유아가 목적격 조사와 도구적 조사를 적절히 사용해 말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목표어휘: 망치, 소화기, 청소기, 망치, 열쇠 2. 종성'ㄷ' 을 포함한 1음절 낱말로 발음 연습 유아가 종성 'ㄷ'을 간헐적으로 생략해 발음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발화 시에 받침'ㄷ'이 발음될 때 혀의 위치와 혀가 경구개에 붙어 발음된다는 것을 유아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한다. 3 . 초성'ㄹ' 발음 연습 유아가 VCV를 반복해서 발음해서 유아가 'ㄹ'이 초성에 있을 때 조음 위치를 본인 스스로 느낄 수 있게 한다. ex)아라아라아라, 오로오로오로, 이리이리이리, 우루우루우루우루 |

| | |
|-------------|---|
| 활동명 | 주격조사 ‘이/가’ 사용하기 / 위치부사 사용하기 |
| 목 표 | <p>주격조사 적절히 사용하기 위치부사 익히기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어휘 익히기 초성 ‘ㄹ’ 발음 연습하기</p> |
| 활동내용 | <p>1. 주격조사 ‘이/가’ 사용하기 - 선생님과 엄마에 그림동사카드를 보고 그 동사를 연결하고 ‘이, 가’ 를 적절히 구별하여 표현하게 한다.</p> <p>2. 위치부사 ‘위, 밖, 위, 밑’ 익히기 - 상자 안에 그림카드를 넣고 빼고 올려놓고 숨기면서 아동이 위치부사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p> <p>3. 숫자 익히기 - 숫자퍼즐을 맞추면서 유아가 ‘일~십’, ‘하나~열’ 까지 적절히 인식하고 표현하게 한다.</p> <p>4. 모음+ ‘ㄹ’ +모음 연습해 'ㄹ' '을 조음점 알기 - 지도사와 음절 길게 말하기 시합을 통해 유아가 초성 ‘ㄹ’ 발음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한다.</p> <p>ex) 아라아라아라아라, 이리이리이리이리, 오로오로오로오로</p> |

| | |
|-------------|---|
| 활동명 | II 단계 어휘 익히기 |
| 목 표 | 직업어휘 익히기 장소어휘 익히기 여러 가지 곤충어휘 익히기 |
| 활동내용 | <p>1. 여러 가지 직업어휘 익히기 선생님, 의사, 간호사, 경찰관, 소방관, 음악가, 화가, 과학자가 각자 무슨일을 하는 사람인지 들려주고 유아가 직업어휘를 들을 수 있도록 한다.</p> <p>2. 장소어휘 익히기 여러 가지 장소명칭을 익히고 각각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게 한다. *장소어휘: 유치원, 학교, 아파트, 슈퍼마켓, 병원, 소방 서,경찰서, 우체국</p> <p>3 . 여러가지 곤충어휘 익히기 나무에 곤충붙이기를 하면서 유아가 곤충명칭을 익힐 수 있도 록 한다.</p> |

| | |
|-------------|--|
| 활동명 | 따라해 보세요. |
| 목 표 | 같다. 다르다 형태와 크기, 집중력과 주의력 |
| 활동내용 | <p>1. 교사와 유아가 양옆으로 나란히 앉아서 5초를 센다. 나무블록 쌓기를 시작한다.</p> <p>2. 교사가 먼저 쌓은 모양을 보고 유아가 따라 똑같이 따라 쌓아 보도록 한다. 블록을 쌓을 수 있도록 한다.</p> <p>3. 유아가 올바르게 교사가 쌓는 모양의 블록을 똑같이 따라 쌓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고 틀린 곳이 있을 경우 상호작용을 통해 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 양쪽에 있는 블록을 보면서 유아가 똑같은 점과 다른 점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수정하고 완성할 수 있도록 한다.</p> |

| | |
|-------------|---|
| 활동명 | 상황에 맞게 말하기. |
| 목 표 | <p>인사그림책 보기</p> <p>밤/낮의 차이 알고 해/달이 언제 뜨는지 이해하기</p> <p>같다/ 다르다의 차이 알기</p> |
| 활동내용 | <p>1. 소리나는 인사 그림책 안녕하세요를 보면서 유아가 상황에 맞는 인사말을 알 수 있도록 한다.</p> <p>2. 밤/ 낮의 차이를 구분할만한 ‘밝다, 어둡다, 환하다, 깜깜하다’ 를 이해하고 그 차이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게 한다 또한 ‘해, 달, 별’ 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게 한다.</p> <p>3. 같은 것끼리 있는 그림과 다른 것끼리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유아가 같다와 다르다의 차이를 이해하고 표현 할 수 있게 한다.</p> |

| | |
|--------------------|--|
| <p>활동명</p> | <p>동물 어휘 익히기</p> |
| <p>목 표</p> | <p>언어발달지도사와 활동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자주쓰이는 명사40개 중 80%이상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 'ㄹ'발음 연습하기</p> |
| <p>활동내용</p> | <p>1. 'ㄹ'발음 연습 (1) 유아가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ㄹ'발음을 하는데 어려움을 보이는지 단모음과 자음'ㄹ'을 붙여 유아가 발음해보게 한다. (2) 유아에게 단모음, 'ㄹ'+단모음을 연결해서 발음해보게 하고 유아가 'ㄹ'의 조음점을 인식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ex) 아라아라, 오로오로, 이리이리</p> <p>2. 동물 퍼즐 맞추기 각 동물별 특징과 세부부위를 살펴보고 유아가 각 동물별특징을 이해하고 세부부위를 알 수 있도록 한다. *목표어휘: 꼬리, 부리, 뿔, 털</p> <p>3. 소리나는 인사책 보기 소리나는 인사 그림책을 보고 상황에 맞는 인사말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목표어휘: 안녕하세요, 안녕히 다녀오세요, 잘 먹겠습니다, 안녕히주무셨어요, 안녕히주무세요</p> |

| | |
|-------------|---|
| 활동명 | 일상생활 어휘 익히기 - 동사 익히기 |
| 목 표 | <p>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동사 익히기</p> <p>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명사 익히기(바다에서 있는 것들 알아보기)</p> |
| 활동내용 | <p>1. 그림카드 10장을 보고 적절한 동사어휘를 사용해 표현하기</p> <p>2. 바다꾸미기 바다에 사는 것들을 붙이면서 유아가 명칭을 익힐 수 있도록 한다. *목표어휘: 오징어, 문어, 고래, 불가사리, 물고기, 어부, 배, 미역</p> <p>3. ‘길다/짧다’, ‘가볍다/무겁다’ 이해하기 길이의 차이와 무게의 차이를 느낄 수 있는 그림을 보고 유아가 ‘길다, 짧다’, ‘가볍다, 무겁다’ 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p> <p>1. 그림카드 10장을 보고 적절한 동사어휘를 사용해 표현하기</p> <p>2. 사물의 기능 익히기+도구격 조사 사용하기 상황전개카드 ‘무엇’ 을 보고 사물의 기능을 이해하고 조사 ‘~로/ ~으로’ 를 사용해 표현할 수 있게 한다. 예) 망치로 못을 박아요, 소화기로 불을 꺼요</p> |